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 강의록

# 현대 사회와 수도생활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이 책은 그린라이트(80g)지를 사용하여 콩기름 인쇄하였습니다.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 강의록

### **현대 사회와 수도생활**

글쓴이 | 성재덕 베드로  
(Pierre Marie Louis Nestor SINGER, M.E.P.)  
펴낸곳 |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1  
(우) 14647  
전 화 | 032) 340-7717 / 7725  
팩 스 | 032) 346-9516  
블로그 | <http://www.소비녀.com>  
발행일 | 2015년 9월 1일  
인 쇄 | Just Project

『현대사회와 수도생활』은 성가소비녀회의 설립자 성재덕 신부의 강의록이다.

이 강의록은 김 양업토마스 수녀가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원문 분석을 위해 초벌 번역한 것을 2015년에 완역하여 정영란 (마리아네스) 교수의 감수를 받아 엮었다.

2015년 봉헌생활의 해를 보내면서, 이 책은 다양한 양상의 놀라운 일들과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신비가요 예언가로 살아가야 할 소비녀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 목 차

일러두기

I.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	1
II. 우리의 과제 .....	13
III. 현대 사회와 인간의 의미 .....	21
IV. 현대 사회와 하느님의 의미 .....	35
V. 현대 사회와 교회의 의미 .....	49
VI. 사도직 실패의 원인 .....	67
VII. 오늘날의 동향과 새로운 수도회들의 설립 .....	77
VIII. 관상에 대하여 .....	94
IX. 주님의 증인됨 .....	99
X. 수도생활이란? .....	107
XI. 수도자가 본당에 가져다주는 것과 본당이 수도자에게 주는 것 .....	118

## 일 러 두 기

---

1. 본고에 인용된 성경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 따르며,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단, 성재덕 신부가 부분 인용하면서 성경 본래의 구절을 변형하여 설명한 내용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성경 말씀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살려 괄호 안에 삽입하되, 본문 글꼴을 똑같이 적용하였다.
2. 본고의 집필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헌 내 몇 가지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오늘’을 가리키는 연도로 1968년, 1969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1971년, 1973년도 한 차례씩 기재되어 있다.
3. 본고는 제목이나 소주제가 뚜렷이 명시되지 않아, 필요에 따라 역자가 본문 내용을 토대로, 소제목을 부여한 경우가 있다.
4. 직접적으로 원문 내용과 관련된 설명은 일반적인 각주 처리를 하였으나, 배경 이해를 위해서 참조할 만한 역자의 부연 설명은 ‘역주’로 표기하였다.

# 현대 사회와 수도생활





## I .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sup>1)</sup>

---

성경에는 ‘세상’에 대해 자주 언급됩니다. 때로는 좋게 때로는 나쁘게 묘사되지요. 좋게 묘사된 예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17)

또 나쁘게 말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1요한 2,15)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1요한 2,16)

예수님께서서는 어딘가에서 악마를 ‘이 세상 임자’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

1) 아직 강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또한 성재덕 신부가 원문의 앞장에 한글로 적어놓은 개요에는 ‘현대의 발명’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현대사회의 갖가지 변화와 그에 대한 관점을 기술한 것이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안에서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우리는 세상을 피해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위험이 많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우리 중에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위해 일하려고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까?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라.' 하신 말씀도 있지요)<sup>2)</sup> 아니면 세상을 미워해야 할까요? 대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죄인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하느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이 20세기에,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여기 사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것은 흥미진진하답니다! 제가 거리에서나 버스 안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가족들 혹은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제겐 흥미롭습니다. 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지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을 볼 때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1. 저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세상은 마치 선생과도 같지요. 예수님도 가르칠 때 역시 세상을 이용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리새이들, 어부들…….

---

2) 참조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2.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느님과 그분 아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례 받은 사람이므로, 제가 세상에 그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또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하지요. 제가 주어야 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00년 전의 세상도 아니고 중세의 세상도 아닌, 바로 오늘, 1969년의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겠지만요.

### 순서 <sup>3)</sup>

하느님의 본뜻	—	예전	—	오늘날
하느님	—	하느님	—	사람
사람	—	자연	—	자연
자연	—	사람	—	하느님

---

3) 성재덕 신부가 한글로 적어놓은 메모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이다. 그가 여기서 ‘순서’라고 말한 것은 하느님, 사람, 자연의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 인간 중심주의<sup>4)</sup>

이 20세기에 세상이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오늘날 세상은 무엇보다 인간을 제일 앞에 내세우는 세상입니다.<sup>5)</sup> 우리가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 부르는 것 말이에요. 인본주의는 인간 행동의 목적이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지상에서 누리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지금껏 늘 그래 왔던 것은 아니었죠.

옛날에 어땠는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은 지구와 온 인류, 자연이었습니다. 자연계에는 무생물과 식물, 동물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하지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연 안에는 법칙이 있지요. 계절과 중력, 농사짓기 등. 옛날에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지닌 과학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과 자연을 혼동하기도 해서,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고 오래도록 믿어왔지요. 이러한 까닭에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 왔고, 더 순수히 하느님께 복종했었습니다.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20세기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세상이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컨대 농업의 경우 옛날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위와 추위, 낮과 밤의 법칙을 따라야만 했지

4) 원문 여백에 한글로 ‘인본주의’라는 메모가 적혀 있으나, 본래의 인본주의보다는, 왜곡된 인간중심주의를 다룬 내용이다.

5) 성재덕 신부는 이 문장을 대문자로 씀으로써, 인간이 중심이 된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요. 하지만 오늘날엔 과학 덕분에 겨울에도 밤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비를 그치게 하거나,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껍질에 난 솜털 때문에 복숭아를 못 먹으니, 이제 사람들은 털 없는 복숭아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도시엔 어떤 꽃이든 아무 때나 길러낼 수도 있고요!

옛날엔 여자들이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하고 살림하느라 많은 수고를 해야 했고, 남자가 농사지을 때 많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반면, 오늘날엔 밥 짓고 빨래하는 기계들이 있고, 농사 짓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아,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는 달에 갈 수 없었고,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지금은 달나라에 가고 있죠. 자연만으로 맘대로 가질 수 없던 아기를 지금은 원하면 가지고 또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환자들의 눈, 신장, 심장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지만, 지금은 하고 있지요.

옛날엔 사람들이 자기 집, 자기 마을에 머무르고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비행기로 땅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브뤼기에르 주교님으로서는 2년이나 걸려야 올 수 있던 거리를, 황 주교님은 하루면 올 수 있지요) 옛날에는 먼 곳의 것을 볼 수 없었는데, 오늘날엔 텔레비전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요컨대 예전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이 자연의 법칙과 그것을 주신 하느님을 동일시해 왔다면, 지금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또 자연이 인간에 복종하는 것이 점차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점점 더 놀랄만한 일들이 많아지겠지요!

하느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무지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참아냈으나 오늘날엔 사람이 그것을 지배하고 임의대로 하고자 합니다. 옛날엔 인간이

자연보다 아래에 있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자연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이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머리 위치에 선 이유입니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상하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아담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창세 1,28) 하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선하신 하느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세요. 하느님의 바람이 조금씩 성취되고 있으니깐요. 한편, 오늘날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오늘날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앞으로써만이, 우리는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느님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점점 더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겨,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법은 하느님의 법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것을 피할 수 없었지만, 과학과 기술이 자연의 법을 거스를 수 있게 하여, 인간은 자연보다 더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은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이 하느님 아래, 인간 위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으니까요.

하느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시며,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앞과 뒤에 계시다고 여겼었는데, 지금은 그저 뒤에 계시 뿐입니다. 앞에는 인간이 있지요. 인간이 인간의 목적이 되었어요. 이것이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요즘 공산주의 세력이 강한테 그것도 인간중심주의의 하나입니다. 자유의지에 따라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하느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느님이시지만,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은 더 이상 전능하지 않고, 인간이야말로 전능한 존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영혼 없는 몸이 되

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것이 히피들이에요.

옛날에 자연은 어느 정도 하느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아녜요. 많은 이들에게서 하느님 생각이 변화되고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의 영향력 역시 감소되었고요. 만일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법칙은 적대자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아니면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그것을 타개할 방법을 찾습니다. (시험관 아기 등)

## 금욕주의의 변화

기술의 결과로 또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금욕주의의 변화입니다. 금욕과 절제, 수고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더는 예전과 같지 않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절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sup>6)</sup>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늘 금욕, 단식, 일하는 수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 빵을 얻으라’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기계 덕에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덜게 되었습니다. 요리하는 기계, 세탁기, 밭 가는 기계, 씨앗 파종기 등 많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옛날의 고행은 쓸모없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발전의 장애물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옛날엔 절제 생활을 받아들였지만, 이젠 아녜요.

물론 우리가 예전의 금욕 생활을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사랑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

6) 본 번역문에 인용된 성경 말씀은, 가급적이면 새 성경에 따랐으나, 이 말씀은 출처가 불분명하여 원문 그대로를 옮겨 놓았다. 가장 유사한 말씀으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3) 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다른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절제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에 대해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과 달라진 모습 중 하나는 근검절약에 대한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조금씩 아끼고, 많이 먹지 않을뿐더러 형편없이 먹었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세요. 상한 과일도 버리지 않고 먹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사람들이 텔레비전, 자동차, 세탁기, 영농기기 등을 사고자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바캉스를 떠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돈 쓸 생각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고 옛날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 무척 고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생활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해주는 이 기계들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인간적인 말이에요.

옛날은 절약하는 사회, 저축 사회였으나, 오늘날은 소비 사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고, 심지어 외상으로 물건을 사기도 해요. 궁핍한 시기가 지나가고 이젠 다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기술과 과학으로 인간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반대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 노동의 변화

현대 기술의 또 다른 영향은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 혼자 일했었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말입니다.<sup>7)</sup> 하지만 오늘날엔 팀을 이루어

---

7) ‘다분히 평화롭게 말입니다’라는 메모가 추가되어 있다.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이 분업화되고 급박해졌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타이어를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품들을 만들고 유리창과 도색 작업 등 여러 사람이 나누어 일을 하지요. 다른 기계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상점에 가 보면 누군가 물건을 사고, 또 누구는 물건을 팝니다. 누군가는 적어놓고 또 계산을 하고요. 농사를 지을 때도 그래요. 누구는 소를 키우고, 누구는 닭을 키웁니다. 어떤 이는 곡물을 재배하고 또 어떤 이는 과일을 재배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지적인 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화학, 생물학, 전기학 등을 나누어 맡아서 연구합니다. 의사들도요! 얼마나 전문 분야로 나뉘어 있는지요!

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누구는 남성 노동자 (J.O.C), 누구는 여성 노동자 (J.O.C.F) 들을 위해 일하지요. 또 어떤 이는 교리를, 누구는 학교 일을, 또 누군가는 자선 사업을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는 누구도 오로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지배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이와 함께 일해야 하지요. 독립성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저마다 어려운 일이에요!

또 우체국, 철도, 국가연합기구랄까, 공공기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들도 점점 더 나뉘어서 공보장관, 관광장관, 보건장관 등 여러 가지가 생겨났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종교도 이 모두를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되살아나신다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 인간적 교제 8)

오늘날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서울에도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아마 점점 더 많아지겠지요. 대도시들 중에는 인구가 2만 명 혹은 그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계속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는 셈이지요! 이로써 인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범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소음, 쓰레기, 위생 등의 문제 때문에 공공규범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점점 더 많은 자동차가 다니고, 교통 법규는 그와 함께 더욱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또 사람들은 커다란 집들과 공장을 짓고, 곳곳에 철로를 깔고 있어요. 국가로서는 규칙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나, 큰 조직에는 인사과)가 있는 것이 당연해지다시피 한 것을 알아차리겠어요? 예전엔 없던 부서인데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날에는 개인 각자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공공의 규범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는,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인간은 자유로웠고 오늘날 역시 그러하지만, 무언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특히나 사장, 감독관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동료나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워하게 되었지요. 공장의 노동자가 다른 동료 노동자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두려워하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 조합을 만듭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

8) 성재덕 신부가 한글로 적어놓은 표현 그대로이다.

9) 성재덕 신부가 in-sa-ka라고 타이핑 하고, 육필로 '인사과'라고 적어 놓았다.

회의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지요.

수도 공동체에서 어느 수녀가 순명하지 않으면 다들 그녀를 교만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녀는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아, 분별력이 없어.” 소위 ‘궤도를 이탈했다, 비뚤어지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이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게다가 저마다 다른 사무실은 또 어떻습니까? 건축하는 것이 복잡한데, 오늘날 특히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마다 공장이나 철로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것이 복잡하기에 계산과 통계, 전자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병들어 있을 때 병원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러 가 봐야 소용없을 것입니다. 진단이 그냥 기계적으로 내려지죠. 병원에는 여섯 명의 간호사를 위해 여섯 명의 비서들이 필요하고, 점점 더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국가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관리 감독 되고 있어요. 오늘날 무슨 일을 하려면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사무실에서 저 사무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고 비교할 것이 많죠. 정말 이러한 관료주의는 복잡하고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엔 없던 절차인데 말예요.

하지만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는 사람은 시대 착오자나 공공의 위협이 되기 십상이죠. 인간관계도 오늘날 변화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여가

오늘날 삶이 고단해지니 사람들은 쉼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정신이 미쳐버리지 않으려면 편안한 곳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레저, 여가, 바캉스입니다.

잘 쉬기 위해서는 우선 편안한 곳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우 편안하고 현대적인 곳에서 말이지요. 깨끗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갖추어져 있고, 폭신한 의자가 놓인 곳 말입니다.

또한, 잘 쉬기 위해서는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기도 하고, 초대할 친구들을 잘 접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식사, 레코드 판, 텔레비전……. 그렇지 않으면 체면을 잃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환대하지 않으면 사교적이지 않은 삶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잘하며 사는 사람은 탐욕스럽게 살거나, 오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 애덕, 예의입니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잘 쉬기 위해서는 때때로 집을 떠나 시골로 가거나, 산으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바캉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휴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II. 우리의 과제

---

**현** 대 세계의 이러한 변화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수  
 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배워야 한  
 다는 것이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까? 아뇨,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지옥이 아닙  
 니다. 슬퍼하며 이를 갈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전한데 단지 새로  
 운 법칙, 새로운 방식들이 생겨났을 뿐입니다.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에게도 역시 변화된 세상 안에서의 새로운 과제가 주어  
 졌습니다.

### 소통

사람들은 점점 더 다양한 회의,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 면 단위로, 혹은 농민들, 노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모임과  
 회의가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또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  
 해 함께 더욱 잘 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sup>10)</sup>

주교들도 회의를 합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로이며, 수도자들도  
 그러하죠. 추기경은 각 본당마다 사목회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합  
 니다. 거기에 모든 사제, 수도자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

10) 회의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행자의 역할이  
 지닌 중요성을 역설하며 ‘진행하는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메모를  
 적어 놓았다.

성령을 받았으며, 말을 할 수 있고 또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전문화하면서 교리교육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또한, 교리, J.A.C, J.O.C 등에 대해 전문가다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 가난 서원의 재발견

이러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 서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 과학기술 덕분에 오늘날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물건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 좋은 물건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취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람들의 요구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수도원엔 필요하지 않고 걸맞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이라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애덕의 행위, 이웃에 대한 호의를 위해 쓰일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신경 쇠약적인 태도에 대한 치료약이 되기도 합니다. 장상이 텔레비전을 사면 정신이 고장 나 버리는 공동체나 수도자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저라면 자동차나 텔레비전 등을 사는 것이 많은 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이를 도와줄 수 있지요. 단, 여기에 있어 필수 조건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요!

## 사도직의 변화

이제 우리의 봉사 직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는데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 사회복지를 통해 그들을 더 잘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탁기를 사서 어머니들이 과도한 일을 피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소풍이라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질병이나 사고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알게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신용조합, 판매조합<sup>11)</sup>, 영화클럽 등 단체를 조직하게 만드는 거죠.

그나저나 우리의 대화 안에서 지나치게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과거를 찬양하거나 오늘날을 비판하기 위해 과거 이야기에 너무 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의 네 가지를 요즘 사람들은 싫어하니까요.

첫째,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결과물에 대해 비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칭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sup>12)</sup>

둘째, 자신의 행복한 순간을 누군가가 무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축구경기, 권투라든가, 뭐 아주 잘하지 않을지라도, 비판하기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

셋째, 누군가의 삶에 어느 정도 평안함이 있다 해도, 그의 걱정 에 무감각하거나, 그 사람 삶이 고되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11) 노동조합, 신용조합, 판매조합이라는 표현은 설립자가 한국어 단어를 음차한 것을, 번역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12) 괄호 안에 ‘영화, 텔레비전, 다양한 기기 구입’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는데, 문장이 모호하다.

넷째, 사람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있어 ‘그건 그 사람 문제야’ 하고 무관심하게 지낸다면 복음화의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방식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을 던지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론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그리 충분하게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제나 수도자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더 이상 성 프란치스코의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자동차, 철도, 비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집과 마을에 조용히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도 물론 없었으니 자신들 울타리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연히 알 길이 없었지요. 단조롭게 성당에 가고, 거기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요. 그러니 교회가 정말 그들 삶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것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보고 있고 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점점 더 가지 않고, 교회 상황은 점점 더 신앙이 뚜렷미지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냉담자



들의 수를 안다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수도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과연 성 프란치스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오로 6세 교황님 말씀대로 그는 더욱 더 민중들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더욱 섞여 살았을 거예요.

사실 2000년 동안 교황님은 이룰테면 간혀 지내셨던 거나 다름 없는데요, 오늘날 교황님도 밖으로 나오십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두 차례나 아시아<sup>13)</sup>에 다녀가셨고, 남미,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태평양의 섬들까지 다녀오셨어요. 또한, 그분은 제네바에 있는 UN 사무소에도 가실 예정입니다. 그분은 또 프로테스탄트와 정교회 신자들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다, 갈릴래아,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가셨고, 그들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세례 받은 이, 사제 그리고 수도자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지, 사람들 밖에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단, 사람들 사이에 섞여셔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되, 세례 받은 자로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비신자들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히 다가

---

13) 역주 : 바오로 6세 교황은 1964년 인도, 1970년에 홍콩, 필리핀 순방을 하였다. 1964년 동방정교회 총대주교 만남이 1964년에 이루어졌으며, 아프리카 순방과 제네바의 유엔본부 방문은 1969년에 있었다.

([https://fr.wikipedia.org/wiki/Paul\\_VI](https://fr.wikipedia.org/wiki/Paul_VI) 참조)

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소통의 시대입니다. 혼자서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팀을 이루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복음 선포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서는 주님께 보고를 드렸지요. 회의, 강연회, 세미나들이 여럿 있고, 오늘날 노동조합, 농민조합 등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세례 받은 이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달아나면 안 됩니다. 거기 참석하고 듣고 대답하고, 좋은 말들을 씨앗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회의, 강연회, 세미나, 노동조합, 농민조합 등에 가고 함께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것이며, 토론하는 것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토론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돈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한가운데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만 따로,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내버려둔 채 무시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포츠, 챔피언 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스포츠 하러 갑시다. 단 우리가 사제, 수도자인 것을 숨기지 말고 갑시다. 사람들 사이에 더욱 잘 어울리기 위해, 사제나 수도자들 중에 어떤 이는 공장노동자가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축구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느 프랑스 주교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수녀 12명이 일하는 한 병원이 있습니다. 수녀들은 그 병원을 도시에 세웠지요. 그들은 유급으로 일하면서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집 하나를 얻어서 거기 이사하고 사복을 하고 살았답니다. 그 수녀들 중 한 명은 고기잡이 일을 하고, 다른 수녀는 호텔의 청소부가 되었답니다. 세 번째 수녀는 사람들 집을 청소하고 옷을 수선해주는

일을 했답니다. 매일 저녁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산다고? 서로 안 싸우고 산다고? 당신들이 수녀라고?” 이후 수녀들은 다시 직권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전보다 수녀들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둘째로 성 프란치스코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 생각엔 가난 서원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긴 수도복, 맨발……. 물론 이것은 좋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예를 하나 살펴봅시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살기 시작했던 처음에, 그분은 걸인처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방법을 바꾸어 좀 더 품위있는 의복을 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지요.

현대 발명품들 덕분에 우리가 사서 쓸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이 많아졌습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등……. 그것들을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이것들이 가난 서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새로운 기기들을 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즉, 이것이 애덕의 활동이요 친절한 행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과로와 신경쇠약, 탈진에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녀들이 너무 신경쇠약에 걸린(과민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장상이 텔레비전을 샀다면 이는 사도직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텔레비전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이들에게 방송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몇 대의 세탁기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가 허락되는 것은 더 많은 곳에 미사를 드리러 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구요.

가난의 정신은 거지처럼 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의

정신이란 언제나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되, 윗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평범한 방식으로 섞여 지내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라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 다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사는데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학교도 병원도 없었고 애덕사업체도 없었지요. 오늘날은 정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분야에서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동조합, 농민조합, 신용조합, 판매조합, 학생기숙사, 취직시키는 사무소……. 옛날에는 애덕의 실천에 한정 지어 생각했다면, 오늘날은 특히나 ‘정의’를 우리 사도직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애덕이 언제나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나,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의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권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살겠다면, 그것은 그의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질문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예요. 또한, 언제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수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거예요.

### III. 현대 사회와 인간의 의미<sup>14)</sup>

---

**우**리는 20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0세기는 기술의 세기, 기계의 세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수많은 기계들, 엄청난 것들, 유용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요. 지난 천 년간 만들어진 것보다 최근 30년 사이에 개발된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이것들 없이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약 사회에서 우리는 소비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 인간의 의미 상실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지 성경을 한 번 살펴봅시다. 구약성경에서 히브리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옛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느님 백성의 역사, 즉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하느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유다 민족은 인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자유가 없었지요. 그들의 종교적 사명, 그 의미도 잊고 살았어요. 하느님의 백성이었으나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의미도 상실했지요. 약속의 땅에 대해선 잊은 지 오래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

---

14) 1969년, 대전에서 했던 강의라는 메모가 삽입되어 있다.

왔고, 하느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고아가 되었다고 여겼어요. 그러던 중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 덕분에 유다 백성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세 덕분에 그들은 사슬을 풀어버리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해갔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기술의 노예, 기계의 노예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의 의미를 잃고, 우리의 종교적 사명의 의미를 잃고, 하느님의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다시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인간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도자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위대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인간의 발명품 때문에, 인간 자신이 인간의 목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이 시대만큼 인간을 경시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인간을 하찮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인간을 업신여기고 있는지요!

## 인간의 존엄함

인간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강생하심으로써, 사람 가운데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분은 인간을 하느님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혈족과 같습니다. 성부 하느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분은 그 안에서 당신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보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죄를 없애시고 우리 안의 모든 허물을 없이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을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강생과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느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인간을 존중하시며, 언제나 자유를 주십니다. 예텐에서처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항상 인간을 존중해 왔습니다. 교회는 “나는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노라”, “고생하는 이들아, 내게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따라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노예제를 철폐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갖지 못했는데, 교회는 주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인간을 위해서, 고아와 병자들, 어린이들, 노인들을 위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수 세기 동안 학교를 세운 것은 교회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황님들의 문헌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최근 발표한 요한 23세의 「어머니요 스승 (Mater et Magistra)」, 바오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 (Populorum progressio)」, 「인간 생명 (Humanae vitae)」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즉시 마음에 상처를 받지요. 이처럼 어느 민족이 자주 독립을 잃어도 똑같습니다. 스스로를 미약하고 만족스럽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불행한 사

람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예전보다도 훨씬 많아졌어요. 말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인들이 유다인들을 업신여겼듯이 말이죠. 어쩌면 그때보다 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강생하심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중국 어린이 하나도 미국인 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흑인도 유럽인이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병자도, 나환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권리와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의 풍요로움을 같은 방식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인간도, 특권을 누릴 민족도, 특권을 지닌 인종도 없습니다. 태양은 어느 특정한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지요. 달도 미국만의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종교는 태양과 같아서, 특정 국가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한국인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생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 가난한 이들의 현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오늘날 모든 인간 가운데 90%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중 어떤 이들은 극도로 빈



곤한 지경에 놓여있지요. 단 10%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산살바도르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서는 2~3%의 사람들이 부의 3/4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제, 수도자인 우리들이 90%의 가난한 이들에게 무관심하고, 10%의 부유한 사람들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예전에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들을 특히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셨고, 그분 첫 말씀도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한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2000년 후인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 하죠. 어떤 이들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부요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는 사는 데에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 자기 영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는 늘 먹고살 걱정, 육신 사정을 고민해야만 하니깐요.

“우선은 빵, 그다음이 철학”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물론 제가 먹고사는 것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에 있어서 가난이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기는 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에게 가난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인도 같이 아주 가난하지만, 사람들의 종교심이 매우 충만한 나라도 있습니다. 한 예로, 인도인들은 갠지스 강에 몸을 담그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순례를 하지요. 하지만 스웨덴처럼 거리의 청소부들도 각자 자가용 한 대씩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부요하면서도, 국민들은 종교에 완전히 무관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성당도 예배당도 텅텅 비어있지요. 한 1% 정도의 사람들만 성당이나 예배당에 갑니다.

네, 그래요. 부요함은 종교의 원천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가난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 기계의 시대인 20세기에 점점 더 인간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입니다. 이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 주거

인간이 경시되고 있는 문제 중에, 먼저 주거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주거를 비교해본 적 없습니까? 몇몇 사람은 크고 깨끗한 집에 사는 데 반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러운 집에서 살고 있는지요. 바로 여기 대전과 서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대도시의 변두리를 보세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으리으리한 집 옆에 깡통으로 만든 오막살이들이 있습니다. 콜카타<sup>15)</sup>에는 그마저도 없어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차가 와서, 거리에서 잠을 자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시신을 치우러 지나가죠. 비참 속에 놓인 이들이 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일까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까?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백만이나 돼요.

그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잇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무관심하게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가 아닌 거죠.

---

15) 역주 : 성재덕 신부 생존 당시에는 캘커타라 칭하였으나, 인도에서 1995년부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해 전통명칭에 따른 지명으로 바꾼 도시 중 하나이므로, 오늘날 공식 표기에 준하여 콜카타라 한다.

## 노동

여러분은 이 가난한 이들의 궁핍함이 그들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업자가 되기 일쑤입니다.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다니지만, 구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을 사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 아내도 밖으로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죠. 이러니 가정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가난한 이들의 집에 뭐 흥미로울 거리라곤 하나도 없어요. 집은 작고 더러운 데다, 6~8명의 식구가 좁은 방 하나에 모여 생활합니다. 물도 전기도 없이 말입니다. 일하고 돌아와서는 지치고 피곤하니 자고 싶지만, 상황은 너무 열악합니다. 어린 아이가 울어대니 잘 수도 없고, 짜증이 난 나머지 자녀를 때리게 되고요. 이렇게 사는 삶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어야 할까요?

## 공장

어떤 이들은 운이 좋아서 공장, 탄광, 철도로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많은 경우, 일하러 가는 데에 한참이 걸립니다. 어떤 공장에서는 기계를 중단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3교대로 8시간씩 일하기도 하죠. 차례로 한 주는 아침에 잠을 자고, 다른 한 주에는 오후에, 또 다른 주에는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러니 가정생활이 가능하거나 하겠어요?

최근 서울에서 한 젊은이가 자살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잘 것 없는 임금에 주일도 없이 하루에 15시간씩 일해 왔기 때문이죠. 또 어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아주 단순한 작은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건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반복합니다. 방직공장 노동자들은 하루에도 같은 손놀림을 수천 번 되풀이하죠. 주일에도 쉬는 법이 없고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도 꿈에서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할 정도랍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면 사장이 달려와서 보더라도, 사람이 사고로 다치면 그냥 의사를 부르고 말지요. 예전에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이 연장을 다루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기계가 인간에게 명령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아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가 가장 높죠?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또 노동자가 그렇게 일만 하다가 공장을 나서면, 머리는 아파져 오죠, 몇 시간의 여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영화관에 가거나 라디오를 듣지, 좀처럼 무언가를 읽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느님은 존재하는가?”와 같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더 이상 없어요. 또 일하는 동안, 노동자가 쉬거나 무엇을 좀 먹고 싶어도, 다 감시를 당합니다. 출근 시간도 감독 당하죠.

저임금과 이런 여러 조건에서 인간은 그저 하나의 톱니바퀴 같은 부품이나 자동기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감소시키는 오늘날의 상황을 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공장, 작업장의 재료들은 질이 향상된 반면, 인간의 품위와 존엄함은 저하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인간임을 알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대체 왜 “나는 사람보다 기계가 더 좋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이 20세기에 사람들은 점점 더 돈을 찾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틀림없이 돈을 가져다줄 거라 믿는 기계를 더 생각하지요.

이 세기에 인간은 인간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낙태로 우리가 생명을 빼앗은 아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람들 안에 전혀 문제시 되지 않고 있어요.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약물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자, 불구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고국에서 쫓겨나 텐트에서 살아가는 수천 명의 망명자들과 난민들도요. 수십억에 달하는 군비 지출과, 달에 간다고 쓰는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그 정도로 사람들을 도우려 할까요? 20세기는 이집트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의 시대보다 더 고약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입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그들 ‘영’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피곤함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빈민굴에서 그렇게 고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 선택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제자들, 가난한 이들, 죄인들, 세리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 사명의 증거로서 다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나다. 보아라, 눈먼 이들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오늘날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을 볼 때, 저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호의를 가진 이들이 그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하셨지요. 가난한 이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떤가요? 또 그리스도는 정의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도 역시 그러하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자각하셨습니다. 것처럼 가난한 이들은 인간임을 자각하여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에서의 노동을 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이는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이는 부자들에 맞서 소리치고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들에 맞서 외치셨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가난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 맞서는 가난한 이들의 투쟁은 바리사이에 맞선 그리스도의 투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수도자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인간 존엄에 대한 의미를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말이지요. 이 문제는 너무나 커다랗고 중요한 것이어서 여기서 지금 몇 마디로 답을 내어놓기란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말하지요. 인간에게 그들 존엄성을 회복시키려면 돈에 대한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요. 자본주의자들을 없애고 부를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설사 좋은 생각으로 그런 일을 요구해서,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형제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종교가 공유재산제를 막는다고 하면서, 종교는 자기들의 적이고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단지 부자들의 처지를 바꾸어 놓는 것에 불과하며, 공산주의가 실현된다 해도 불의와 증오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과 정의 안에서 행합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은 적이며, 인간이 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르 8,36) 그리고 교황님께서도 ‘만일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이 모든 기계들을 개발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 6,24)

히브리인들은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합니다. 지나치게 돈을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형제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발견할 수조차 없게 되었지요. 인간 삶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일할 줄도 모릅니다.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오늘날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에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인간을 가난에 내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들 품위를 들어 높이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백성의 새로운 모세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사회 복지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는 고통받는 가

난한 이를 돕는 것인데, 수도자인 여러분은 이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20세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한 이를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애덕만 말해왔는데, 오늘날엔 정의를 더욱 외쳐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 의로움을 찾아라" (마태 6,33)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해요. 정신적으로만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도 말이죠. 복음을 읽어보세요. 절반 이상이 육신에 도움을 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여러분은 수도원 안에서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을 안에서, 평범한 집에서 그리고 노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바람을, 즉 그분의 원의인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 2,15-17)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 살펴봅시다.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교의를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을 위해 행하신 바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반쪽짜리에 머물고 맙니다.

그분의 첫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난한 신랑, 신부를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커다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가난한 하인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이었지요.

또한, 그분의 마지막 기적은, 베드로가 잘라버린 가엾은 말코스의 귀를 다시 붙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이들과 중풍 병자들, 가난한 여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루카 6.20) 이었죠.

조금 전에 이야기 하던 것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날의 열심하다는 신자들을 좀 보세요. 신앙 열기로 가득 찼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각지에서 바치는 헌금들 말입니다!

매년 사순시기를 보내며, 단식하고 절제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위해 애금 희사합니다. 한국 주교들도 벨기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순 헌금에서 많은 원조를 받았죠.

어느 날엔가 한 정치인이 불쌍한 나환우를 돌보는 수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수녀님, 누가 저에게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해도, 수녀님이 하는 그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그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큰돈을 준다고 이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가엾은 이가 바로 저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그분은 ‘이 작은 이들 중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시지요.”

수도자인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애덕을 실천할 때 바리사이들처럼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애덕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만큼은 사람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자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범을 통해서, 사제들도 가난한 이들과 가난함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야 합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제들도 있는데, 수도자라고 해서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법 없잖습니까? 오늘날은 애덕 활동보다 더 정의를 이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인간 지위 향상을 위해서요!

요즘 가난한 이들이 사는 한가운데로 들어가 허술한 가건물, 막사 같은 데서 사는 수도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수녀님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왜 그렇게, 그만큼 사는 수도자들이 없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난한 이들에게로 더 가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금욕, 고행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고행보다 사랑의 실천을 더욱 강조하고 권고합니다. 애덕의 행위란 돈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가 방문하는 것,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돕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하죠.

인간은 검은 희든 노랑든, 피부색과 관계없이 피로, 또 살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힘을 다해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똑같은 하나의 계명이니까요. 비록 사람들이 우리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 IV. 현대 사회와 하느님의 의미 16)

---

**이** 20세기에 과학, 기술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분명 좋은 일이며 하느님도 물론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들의 증대가 인간에게 있어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지혜롭게 맞서는 법을 알아야만 하지요.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기계들 때문에

첫째, 사람은 잊고, 사람이 기계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가치를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기계발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더더욱 기계로 시선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사명이 지닌 의미를 잊고 교회의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셋째,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바로 이점을 살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에 사로잡혀 과학만 바라볼 뿐, 하느님을 잊고 하느님의 의미도 상실한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인 히브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분을 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과 마찬가지로 금송아지 같은 우상

---

16) 성재덕 신부는 이 소제목 옆에 우리말로 '주격이 약해진다'고 적어 놓았다. 또한 강의록의 이 부분은 아직 강의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불어로 표시되어 있다.

을 섬겼지요. 그들은 모세 덕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백성, 즉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잇고 기계 등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직 그분 덕에, 그분의 신비체로, 인간은 이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 하느님의 의미 상실

하느님에 대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하나의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 천국에서 유혹에 굴복당한 이후부터 인간은 오만해졌습니다. “너희는 신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삭인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인간은 신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해 왔지요. 바벨탑을 쌓던 때에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때도, 혹은 거룩한 교회를 박해하던 때에도 인간은 하느님에게 맞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느님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전을 보면서 말이죠.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과학을 신봉하고 있어서, 과학이 마침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까지도요. 또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도 마침내 과학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여깁니다. 모든 질병들을 고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음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유치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필연적으로 하느님을 잇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달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머지않아 금성에

도, 해왕성에도, 다른 별에까지도 이르게 되겠지요. 또한, 오늘날 심장, 신장, 눈, 팔 등을 이식하고 교체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질병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을 풍요로운 들판으로 바꾸고, 북극에 작물을 심기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볼 때면, 특히나 종교 때문이라도 ‘일하시는 하느님’을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며, ‘일하고 작업하는 인간’을 봅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는 몇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한 갈릴레오의 이론이나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불교의 윤회설과 같이 다른 종교들도 역시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교회를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운전기 사나 기관차의 철도기관사, 비행기 파일럿들이 미친 듯이 달릴 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지요. 그들은 자신을 신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진심으로 하느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그들에게 있어 새로운 신(神)인 것입니다. 오직 과학만이 그들에게 스쿠터,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을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오직 그 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느님은 무엇을 주시느냐고 사람들은 되묻습니다. 과연 그분을 보거나 만질 수 있느냐고 말이죠.

옛날에 인간은 자연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엔 역으로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간이 산, 바다, 눈, 비를 볼 때 하느님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전자공장, 댐, 기계를 보면서 과학의 인간을 생각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가뭄에 비를 청하며 기도를 했다면, 오늘날에는 댐을 만들고 관개사업을 하고 있지요. 심지어 인간이 원하는 때에 비를 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무슨 소용입니까? 쓸모없습니다. 하느님 없이도 인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치 새로운 종교처럼 ‘과학님의 종교’가 생겨난 이유입니다.

## 새로운 종교 - 과학

앞서 말한 새로운 종교가 오늘날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삶에서 하느님을 제거한다면, 불가피하게 그분을 대신할 무언가를 채우기 마련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을 먹거나 숨 쉬는 것이 꼭 필요하듯이 종교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어떤 민족의 역사든 한 번 보십시오. 언제나, 모든 곳에서 민족들은 저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어디든 말입니다. 그래서 도처에 오랜 기념물이나 유적이 있는데 모두가 종교 기념물입니다. 돈이 없는 민족은 있었을지언정, 제물 바칠 제단이 없었던 민족은 찾아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들도 어느 때는 참 하느님을 섬기다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금송아지나 주변 민족들의 신과 같이 거짓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 역시 하나의 종교인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입니다.

종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종교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톨릭은 무엇을 지니고 있고, 학자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종교도 이러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 그들에게는 실험실이 있지요.
- 우리에게는 사제가 있습니다! - 그들에게는 실험자가 있고요.
- 우리에게는 하나의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 그들에게는 히로시마의 죽음처럼, 과학으로 인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죽음뿐입니다.
- 우리에게는 성경과 복음이 있습니다! - 그들에게는 조직계획,

5개년 계획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우리에게서 성인들이 있습니다! - 그들에게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인입니다.
-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 그들은 텔레비전, 냉장고와 다른 기계들을 받습니다.
- 우리는 천국을 희망합니다! - 그들은 내일을 위해, 이상한 행복을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행복이 대체 언제야 실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음식 등 모든 것이 버튼을 누르면 나오겠지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명령한 것을 해야만 하고, 자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각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게 될 거고요! 장차 아이들은 실험실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은 주사 한 방으로 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과학자들 편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느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이 지상에서 인류가 누리는 물질적 행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천국을 희망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두고 단지 미끼일 뿐이라고, 쓸모없는 밀밥이라고 해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다 행복해지도록 일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어쨌든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은 행복해질지도 모르죠.

그들은 각 개인이 공산주의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 정신을 지닌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저마다 모든 이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획득한 부는 국가에 의해 재분배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불가능하고 심지어 나쁘기까지 한 것입니다. 교회가 초기 공동체에서 시도했었고 그러한 경험이 있지만, 결국 포기했지요.

물론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하니까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거짓말쟁이다.” 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나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자 하지 않고, 이에 마음 쓰지 않으면서 인간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산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성격, 지성, 권위 등이 다르며, 또 앞으로도 계속 다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돈, 건강, 일, 여자, 집 문제를 두고 다툽니다. 누가 이것을 판정할까요? 부의 분배를 누가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분배할 사람이 자기 친구나 부모에게 더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인간은 단지 사회를 위한 도구나 재료 혹은 하나의 번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라고는 전혀 없을 거예요! 인간이 사회보다 앞서 존재합니다. 인간이 사회를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과학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종교, 그들이 제시하는 신은 좋은 종교도 바람직한 신도 아닙니다!



## 하느님의 의미 회복과 진정한 발전

우리 하느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유효하며, 또 언제까지나 그러합니다! 앞에서 저는 과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하느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들이 원하는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여러분은 틀림없이 가슴이 아플 텐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자,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보도록 하지요.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과학 덕택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없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기계 덕분에 일할 때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 빨리 되지는 않을 터! 암요!

만일 여러분이 그저 소풍이라도 한번 가고 싶다 한단들, 원하는 때에, 맘대로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혹은 과학이 지진, 화산분화, 태풍, 장마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폭풍우에 배를 잃고 만 어부에게 과학의 효용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과학이 정말로 그렇게 멋진가요? 단 일 초 만에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원자폭탄이요?

인류가 만 년이 넘도록 이룩해온 것보다 지난 50년 동안 과학이 이룬 발전이 엄청나다 해도, 오직 하느님만이 무한하시며, 인간은 유한합니다. 무한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고, 사막의 모래 한 알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인생은 1초에 불과합니다. 과학의 발전 덕분이라고 그렇게 도취되어 있는 것은 가소롭고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과학이 큰 발전을 이룬 것은 맞지만 그만큼 또 많은 부분에서 실패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오늘날 비행기,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형제가 되며, 국경이나 경계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현실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일찍이 그 어느 때도 지금만큼 싸운 적은 없을 것입니다. 비아프라<sup>17)</sup>, 중국, 베트남, 볼리비아, 콜롬비아를 보세요.

둘째, 과학은 원자나 코발트같이 좋은 것들도 많이 발견했는데, 이것들은 질병을 고친다거나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데에 쓰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처럼 수천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쓰고 있지 뭐니까.

셋째, 사람들은 직물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예전보다 더 많이, 더 잘 생산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냈지요. 그런데 이 기계들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났고, 가난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많아졌습니다!

넷째,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 농기계를 만들어내서 예전보다 천 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작물을 태우거나 내버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데 말이죠.

다섯째, 우리가 원자폭탄을 경험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와 바다도 오염되었지요. 러시아와 미국은 몇십억의 사람들을 해칠 수 있을 만큼 대량의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실험실이 되었고 인간이 실험용 모르모트같은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지옥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만, 이 땅이야말로 진짜 지옥이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까지도 놀라고 당황해서 그만 멈추라고 말합니다.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 오직 교황

---

17) 역주 : 나이지리아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1967년~1970년에 존립했던 국가이다. (<https://fr.wikipedia.org/wiki/Biafra> 참조)

님만 반대하셨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도요!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다 낮게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파괴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종교의 유익함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근래에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계획에 있어서는 인간이 정말로 성인이 되었지만, 불행히도 신앙에 관해서는 더 알고자 하지 않으며, 신앙에 관한 구상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인 진보 없이는 물질적인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저울과 같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만일 각 사람이 점점 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마치 동물처럼 한 지배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급급하다면 이것은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과학자보다 성인을 훨씬 더 필요로 합니다. 사랑을 널리 퍼뜨릴 성인말예요. 물론 요즘도 이러한 성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인간은 파괴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세포 하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죽은 이를 되살릴 수도 없지요. 과학자들은 범죄, 전쟁 등, 인간을 외적으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련에서는 사람이 모든 의지를 잃고 실험자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하게 만드는 약을 만들어서, 인간을 내적으로도 파괴하는 데에도 성공했지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과학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죄악을 위해 일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기만 할 수 있지요?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사인 린드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비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술로 도시들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종교가 과학보다 더욱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를 알고 또 실천해야 하며, 과학도 이 진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더 이상 하느님을 믿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윤리 규범을 거부하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 이것은 결국 모든 이에게 되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나 봅니다. 그 증거는 사람들이 점점 더 교황님께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황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문에서도 교황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필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자연을 관상하며 자연히 하느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엔 지금껏 우리가 무시해온 것들을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느님은 오늘 우리가 석유, 전기, 원자를 알게 되었다고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들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 아니십니까? 과학의 유용함을 잘 누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학을 저주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한편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과학, 기술, 발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음 부대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리스도 없는 발전이라는 것은 재앙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일치, 집산주의<sup>18)</sup>, 평등 등을 말할 수 있고, 이런 말을 듣는 것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말들이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느님의 사랑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그분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

18) 집산주의(Collectivism, 集産主義)는 주요 생산수단을 공유화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보는 정치이론이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와 대조를 이룬다. 집산주의는 토지, 철도, 광산 등 수많은 자본들의 국유화를 주장하지만, 개별 소비의 자유는 인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른 사람들의 상사라도 되는 듯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 결론

처음에 저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의미, 하느님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과학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느님을 거부하면 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오늘도 여전히 하느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으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고 그분 뜻에 따라 풀어나가고자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에 대한 감각, 그분의 의미를 상실한 세상에서, 수도자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세례 받은 이들, 수도자들은 정말로 하느님을 믿고 있지요? 진정으로 믿는 이야말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 (이사 6,5) 또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에서, “모세는 하느님을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탈출 3,6) 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기적을 보고 그는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루카 5,8)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부활 후 겐네사렛 호

숫가에서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요한 21,7) 하자 그는 몹시 놀라서 얼른 옷을 걸쳤고요.

바로 사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사도 9,3-4ㄴ) 참으로 주님을 아는 것은 별안간, 순식간에 일어나며, 이것은 완전한 전복입니다. 그래서 결코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분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고결하심을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우리 약함, 부당함과 보잘것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만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힘든 일이지요.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은 바오로 사도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뽀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사도 26,1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 6,8) 그는 성모님처럼, 주님께서 자기를 쓰시도록 내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 번 거절하다가 마침내는 받아들였지요. 베드로는 작은 고깃배와 그물을 두고 떠납니다. 박해자였던 바오로는 사도가 되었고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는 진지한 일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며 바로 오늘, 이 1971년에도 살아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참된 믿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폴레옹, 이순신 장군을 믿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역사가의 믿음이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죄에서 죽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베드로, 바오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성인

들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길지도 모르죠. 우리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좋으심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저버릴까 두렵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합니다. 그것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르겠지만, 죄를 기워 갚는 데에 결국 참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자이므로, 우리 자신부터 회개함으로써 100% 수도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열정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세례는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미지근한 사람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묵시 3,16)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물며 수도자라고 말하면서, 수도자처럼 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 완전해지고자 힘쓰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대저택에서의 부유한 삶으로, 세계 도처에 있는 수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이들 말입니다. 물과 땅, 양쪽에 밭을 걸친 양서류처럼, 이는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한심한지요!

그래서 교황님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으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공의회 직전, 그분의 첫 순방지는 아씨시였습니다. 세상이 하느님의 의미를 새롭게 가지려면, 하느님에 대한 의미, 하느님의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수도원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여러분 사업의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다만 그들은 하느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수도자로서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부요함을 원하지만, 여러분을 통해 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는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세상은 향락을 좇고 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자기 육신의 쾌락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참된 수도자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참된 수도자들이야말로 하느님의 표징, 징표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세상이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 V. 현대 사회와 교회의 의미 <sup>19)</sup>

---

오늘날 인간은 교회가 갖는 의미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술과 과학은 좋은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도 과학의 발전을 원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미를 잃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기술은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계속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면,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오로 사도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이다.”

교회의 존재 의미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은 “땅 극변까지 나를 증거하여라. (eritis mihi testes usque ad ultimum terrae)” 였습니다.

방심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사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상의 부나 기술에 정신을 빼앗겨 방심하면, 한눈을 팔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잊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인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는

---

19)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69년 8월, 대전에서 했던 강 의라고 표시되어 있다.

데, 바로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참 하느님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모범으로써, 말로써 하느님의 현존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고된 노역을 강요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자신들의 소명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의미도 잊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 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도 많이 방심하고 있어 우리 사명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sup>20)</sup>

그럼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또 우리는 오늘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2.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행동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3. 예수님께서 당신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하여 어떻게 행동하셨고, 그분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

20)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의미를 잃게 만든 것은 부(富)와 권력과 논쟁입니다.’ 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 부자들에 대하여

*부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던 것을 천천히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오 복음 10장 7절과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마태 10,7-10)

불행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도우라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주님의 이러한 바람을 눈여겨봅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에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권고하신 것처럼 보이시기까지 합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이 하느님이시며 가장 부요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전 생애 동안 얼마나 돈에 무심하셨습니까? 이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마을 나자렛에서, 가난한 이들 한가운데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공생활 동안 머리 돌 곳조차 없이 지내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음식을 드셨고요. 또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는 오직 어머니만 남아있을 뿐이었는데, 어머니마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로 가난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며 하신 첫 말씀도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루카 6,20) 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분 제자인 우리를 한 번 봅시다! 하느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사제들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나요? 자녀들, 친

구들, 이웃들에게 우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돈을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삶이 얼마나 고된지, 구입하고 싶은 기계는 뭐고, 하고 싶은 여행이 무엇인지, 정치는 어떤지 등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야기하지도 묻지도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의미, 자신들이 지냈을 종교적 사명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를 그저 소방관<sup>21)</sup>들의 모임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현실을 보고 들어보도록 합시다. 교회에서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까? 돈이죠. 교무금, 헌금, 성전건축 (공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마치 교회가 예식을 행하는 회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결혼과 장례 예식 수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이 사제나 수도자를 보러 오면, 수도자는 무엇보다도 “이 영혼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도자라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좀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곧잘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정신, 종교적 사명에 대한 감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하느님의 섭리를 신앙하기는 할까요?

또 건물을 얘기해볼까요? 주변 건물과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대체로 아름답게 지어진, 커다란 성당들이 주중에 거의 대부분 비어 있어요. 멋진 학교들, 환자들이 하루에도 엄청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병원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좋은 사제관과 수도원을 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가난을 가르치시기에 앞서, 당신 몸소 가난을 사셨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부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

21) 여기서 ‘소방관’에 굳이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부끄러움 없이 가난한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전체 인구 중에 최소한 90%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작은 새와 들에 핀 나리꽃’ (마태 6,26-28 참조) 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시대 이래로 교회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통계들을 보면 가톨릭 신자가 6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자선 사업, 선교, 신학교 등을 꾸려가는 데에는 자금이 필요하지요. 게다가 20세기에 중세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러한 외적인 면을 볼 때, 수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부자들 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모습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의 정신을 잊고, 그들의 종교적 사명도 잊은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이들을 많이 돌보며 가난하게 살았던 빈센트 드 폴, 요한 보스코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도 있었지요. 많은 교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등급을 없애서 다 비슷한 격을 갖도록 이끌기도 하고요. 또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제나 수도자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수녀님들처럼 빈민촌 사람들 사이에, 판잣집에서 살아가는 사제나 수도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아주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부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진’, 곧 그리스도를 판박이처럼 닮지 않고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들이 느끼기에 교회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부자들 편에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생각에 교회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 많

은 것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 삶을 개선하는 데에 방해되는 집단으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은 가난의 정신을 이해했지만, 애석하게도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의 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난의 정신을 지닐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진정 가난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리스도의 편에 있게 될 것이고, 교회의 정신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종교적 사명에 대한 감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 권력자들에 대하여

*권력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우리!*

우선 저는 예수님께서 권력자들에 순응하면서도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이셨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분은 카이사르에게 순종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에 헤로데에게 순종하셨으며, 본시오 빌라도에게도, 당신을 박해하는 이들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유대 율법에 순종하셨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셨지요. 그분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순종하셨지, 종처럼 복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쭙었던 베드로 성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세금을 바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을 염려하시어 세금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또 본시오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위에서부터 주어지지 않았으면 너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는 데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던가요? “카이사르의 것

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간음한 여인이 잡혀 오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자들을 비판하여 경고하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었던 이러한 독립성은 오늘날 교회에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위선적인 바리사이들도 겁내지 않으셨지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요한 세례자도 헤로데 앞에서 그러했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4,20)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권력자들을 마주하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어떨습니까? 옛날에 교황, 주교, 사제들마저도 왕과 권력자들에게 너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교들은 왕이 원하는 사람을 서품하는 일도 왕왕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어떤 주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백성들 한가운데에 살지 않고, 높은 사람들 곁에 지나치게 머물렀습니다.

사제가 되는 것이 마치 높은 권력을 하나 쥐는 것처럼 여겨져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 사제가 된 이들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조금은 그런 면이 있긴 하죠. 그러나 혁명이 일어나 왕이 폐위되자 왕과 결탁되어 있던 교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일이 1789년 프랑스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박해 시기 동안에 일어났지요.

만일 지금 교회가 공화당에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다가 공화당이 무너지면, 정권을 잡은 반대당이 교회를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편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여전히 부자들입니다. 엄청난 부

자들이죠.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많은 이들이 그들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세평이 벌써 확인해 준 바이지만, 만약 교회가 이 부자들과 너무 가까우면,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부자들을 처형하면서, 어쩌면 교회 사람들도 해칠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이미 스페인에서 벌어졌지요. 또 공산주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증오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영혼으로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존재하지요.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영혼과 육신 두 가지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복음은 적어도 육신을 위해서 일하신 점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교회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몇 세기 동안은 영혼에 대해서만 말해왔습니다. 천국, 지옥, 죄 등에 대해서만 말이죠. 육신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가난한 이들, 노동자들이 교회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육신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에게 전혀 유익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영혼이다 육신이다 하는 것에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신자들이 미사에 참례하면서도 가난한 이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사가 끝나고 나가면서도 고통받는 이들과 이야기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요!

교회 안에는 이혼한 이들에 대한 규정,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 등이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부자, 거대한 공장주에 관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위생상태가 엉망인 곳에서 너무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이것이 더 큰 죄가 아닙니까? 저는 또 가정이나 수녀원에서 어린 식모를 데리고 있으면서,



잡잘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만 하나 겨우 내어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리스도께서는 권력자들과 부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육신적 삶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늘 침묵을 해 온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자주 이야기해 온 것도 사실이죠. 교회는 초기에 노예들에 대해서 말했고, 점점 노예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노동자들의 휴일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거의 모든 곳에서 주일은 쉬게 되었습니다.

또 세례를 받은 콘스탄티누스 황제<sup>22)</sup>가 반란을 일으킨 어느 마을의 주민을 모두 죽이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암브로시오 성인은 그가 보속을 하기 전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릴(Lille)에서 노동조합과 경영자들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곳 주교님께 판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주교님은 노동자들이 옳다고 인정해 주었다고 해요. 그분이 나중에 추기경이 되셨지요. 또 피렌체라는 큰 도시의 시장인 피라(Pira)는 신자였는데, 공장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실업자들이 생겨날 것을 염려한 것이지요.

교황님의 최근 문헌인 「어머니요 스승 (Mater et Magistra)」, 「민족들의 발전 (Populorum progressio)」, 「인간 생명 (Humanae vitae)」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자주 가난한 이들에 대해 이야기 해 왔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삶과 관련된 문제에

---

22) 역주 : 성재덕 신부의 강론 원고에는 콘스탄티누스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일화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Ambrose> 참조)

교회가 충분히 관심을 두지는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영혼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너무도 자주 ‘구원해야 할 것은 오직 영혼뿐이다.’ 라고 읊어 왔습니다. 교회는 너무 과도하게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 귀양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지요. 세상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빵을 많이 할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교황님은 ‘교회의 가장 큰 죄는 노동자 계급을 잃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을 기억하세요. 당시 교황, 주교, 사제들은 하늘나라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부자들처럼, 부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냥이나 다니고, 어떤 이들은 중대한 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민중들은 비참 속에 곤궁하게 살고 있었지요. 진저리가 난 사람들 몇몇은 교회를 바로잡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권한은 없으나 종종 타당한 이유에서- 시작되었고 4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런던 근교에 부자들이 사치를 부리고 노름도 하는 그런 해변에, 어느 날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불태우고 부수고,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의하세요! 만약 교회가 지나치게 권력자와 부자들 편에 있으면서 가난한 이들과는 충분히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이들이 격분해 반란을 일으켜, 부자들을 위한 교회와 학교, 병원 등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오랫동안 학교, 고아원, 노인 호스피스, 병원 등을 운영해 왔다’고 말입니다. 물론 틀림없는 사실이

에요. 또 그 사업들을 계속하면서 증가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하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위에서 아래로 던져 주는 적선에 그칠 수 있다는 것ですよ.

20세기에 인간은 어른이 되었고 더 이상 단순히 적선, 동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굴욕적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이들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 6,33)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의로움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의를 원합니다. 모든 이에게 똑같은 권리를 원해요. 공부하러 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괜찮은 집에 살며, 충분한 돈을 벌 권리 말이죠.

이러한 정의를 위해서 가난한 이,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투쟁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겐 누군가를 죽이거나 흠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저함 없이, 교회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만약 가난한 이들이 항상 교회는 권력자, 정부, 부자 편에 있고 가난한 이들 편에 서지 않는 것을 본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공산주의자들 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이들을 더욱 격려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J.O.C, J.A.C, 노동조합, 사회사업 등)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만, 애석하게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에 맞서는 것이 두려워서 많은 이들이 교회 정신을 잃었습니다.

## 반대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에 맞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셨습니다. 그분이 나셨을 때 헤로데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분의 첫 기적들 후에 나자렛 사람들은 그분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여러 번이나 그분을 잡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악의를 품은 질문으로, 그분을 고발할 구실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지요.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나 손을 씻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요.

물론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그들을 없애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신 수난 때, 한 말씀으로 군사들을 무찌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짓궂은 질문에도 대답을 해 주셨고, 항상 정중하게 대답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악마의 자식’이라고 욕을 퍼부어도 모욕으로 되받지 않으셨지요. 어떤 때에는 아예 대답하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헤로데, 카야파 앞에서…….

짓어대는 개들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과 같이, 그분은 적대적인 사람들 한가운데를 두려움 없이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성나게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다에게까지도 포도주에 담긴 빵 한 조각을 내어 주셨지요. 친구로…….

이제 하느님의 백성을 한 번 봅시다. 물론 하느님의 백성인 가톨릭 신자들도 생각이 다른 이들, 반대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불교, 이슬람교와 같이 종교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

리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흔히 증오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아니, 타종교는 그렇다 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10억 명가량 됩니다. 하지만 여러 교파로 갈라져 있지요. 교회 역사를 다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저마다 각자가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는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종교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 가톨릭 신자들처럼 행동하셨을까요? 이것이 교회 정신을 상실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비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보면서도 교회를 믿기를 바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 다른 이를 사랑하여라.” 하지만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비웃으면서 “의사야, 먼저 네 병이나 고치시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톨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이러한 애덕의 결핍이 나타납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한 교구나 본당에서도 파벌이 있어요. 북한, 경상도 전라도로 끊임없이 나누고, 홍산 본당 안에도 안나회, 부인회 등 단체들이 갈라져 있죠! 수도자들도 마찬가지로예요. 서로 다른 수도회를 비방합니다.

미사에 참례하고, 예수님의 같은 몸을 영하고는 나오자마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합니다. 무어라도 도울 일이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가요? 과연 그렇게 행동하고도 교회 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싸울 거리를 찾지 맙시다. 모욕하는 이들에게 맞서지 맙시다. 언제나 정중하게 말합시다. 갈라질 이유보다

오히려 일치할 이유를 찾도록 하고, 나아가 함께 일하도록 합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하는 십계의 시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그 옛날,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은 근심거리에 눌린 나머지 자신들이 하느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와 같았지요. 그러다 모세가 나타나서야,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임을 다시 기억해 냈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들을 율아뻬던 사슬을 끊고 이집트를 빠져나와, 다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죠.

오늘날 우리도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 때문에, 또 무수한 유혹 때문에 우리도 역시 자주 잊고 지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사슬을 끊고, 하늘에 약속된 땅을 향하여 함께 떠납시다.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나 변명한 시기는 일찍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정신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수도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 사제가 비오 11세 교황님께 여쭙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신심입니까? 예수성심 신심인가요, 아니면 성모 신심인가요?” 누군가 교황님께 질문을 하면, 언제나 교황님은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말씀이 전 세계에 순식간에 알려지기 때문이죠. 비오 11세 교황님도 마찬가지로 잠시 생각하신 다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신심은 교회에 대한 신심입니다!”

사실 사도신경과 니체아 신경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나이다, 나는 성체성사를 믿나이다.” 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적혀있지요. 교회를 믿는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교의를 믿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으뜸가는 신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서간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에페 5,25) 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에페 5,29)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에페 5,2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은 이, 수도자, 사제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과 교회의 종이 됨은 똑같은 영예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 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콜로 1,25)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교회는 가장 눈부신 단체입니다. 2000년 동안의 투쟁과 승리, 거룩함과 선행을 간직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지녔지요. 어떤 단체도 이토록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갓 시작된, 역사 없는 단체들을 선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또한 가장 아름다운 조직입니다. 충직한 교황, 주교, 사제들, 이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야말로 가장 규율이 잡힌 군대<sup>23)</sup>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장 보편적인 단체입니다. 교회는 어디에나 있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가장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산 이와 죽은 이들이 (천국과 연옥) 모두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가장 멋진 단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일을 이룬 것도 교회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과학 발전을 위해, 또 미술, 음악, 그림 등 예술 분야에서, 혹은 교육과 빈민 등을 위해서도 말이죠. 교회가 침투되지 않은

---

23) 여기에 ‘순명하는 군대’라는 메모가 추가되어 있다.

곳에서는 사람들의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여성들이 업신여김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안에 드러나는 결과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나, 그 결과들만 가지고 교회를 보기보다는, 하느님의 생각 안에서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한층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니까요.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는 하느님의 원의에 따른 업적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또 교회를 세우시고자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생각 속에는 구원과 교회가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안에 영속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구원의 일꾼이 되는 것은 교회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평범한 여느 단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비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9,4)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하느님께 뽑힌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홍수가 닥쳤을 때 구조하려면 배에 올라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지요. 모든 배에는 선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또 교황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선장이 우리에게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일치하여 교황님을 더 사랑한다면, 교회의 더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모두 교황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갈라 1,18) 또한 교회 시초에 교황인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간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사도 12,5)

교황님에 대한 신심은 나중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시작부터, 교회와 함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교황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교황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 말씀을 읽읍시다.

교황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높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모든 이에게 법이 됩니다. 결국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늘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루카 22,32) 하고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치더라도 교회는 침몰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나쁘게 말하더라도 침착하세요. 교회를 믿으세요. 교회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던가요. 그러니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교회는 2000년 동안 더 큰 폭풍우를 견디고 이겨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가지는 이 사랑이 으뜸입니다. 수사, 수녀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도회보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보다도, 수도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성 베드로가 먼저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무엇보다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 말할 때는 언제나 존경과 사랑을 지니고 말하도록 하세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분명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는 훌륭

하며, 더욱더 그렇게 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에 대하여 언제나 높은 생각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모신 성교회에 긍지를 가지세요.

## VI. 사도직 실패의 원인

---

**우**리의 사도직 실패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천성적으로 비관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실패로 보려고 해요. 뭐든 시작해봐야 소용없다고 여기고는 자신의 조그마한 삶을 이어가는 것과 자기 기도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해요. 윗사람이 명령한 것만 할 뿐이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만 맞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낙관적이지요.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근사한 사람들이 기꺼이 다가오는 데다가, 무언가를 배워 익히기도 잘합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니 곧 이것도 시작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하지요.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비관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비관주의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낙관적인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은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비관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나?” (마태 17,17) 또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한국에서는 낙관주의자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다시피, 교회 신자 수가 20년 동안, 130,000에서

730,000명으로, 일곱 배나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또 신학교가 신학생들로 넘쳐나고, 회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많은 수도단체들이 있지요.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밖에요.

그럼에도 비관주의자가 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성소를 저버리는 사제나 수도자들, 냉담자들, 3.8선, 사방의 개신교 신자들 등……. 어쨌든 우리는 여기 모여 하느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간혹 낙심하여 이것은 잘 안 되고, 내가 있는 저 사도직은 순조롭지 않고, 한 마디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에 대해 탄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이와 더불어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사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실패로 끝나셨고 사도 바오로도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실패를 맛보았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 조급함

사도직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우리의 조급함을, 한 번 거리를 두고 살펴봅시다. 평소 우리는 지나치게 바쁩니다! 어느덧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철학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자연은 단숨에 펄쩍 뛰어넘지 않는다.”<sup>24)</sup> 모든 것은 천천히 자라납니다. 사람은 씨를 뿌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그것을 거두어들이게 되지요. 어떤 경우에는 몇 해가 지나서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나 인삼이 그렇

---

24) 역주 : 자연에는 비약 없이, 연속적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의미로 라이프니츠가 남긴 격언 “La nature ne fait pas de sauts.”를 인용한 것이다.

듯이요. “하느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앗을 뿌리세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과제지만 그것을 성장시키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거두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아주 짧은 순간을 살다 갑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너무 바쁘지요. 죽기 전에 모든 성공을 보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어, 그분께는 천 년도 하루 같습니다. 위대한 주님이신 하느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좁은 공간에 살고 있고,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매일의 조그마한 일들을 더 잘, 조바심내지 않고 해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면 평화 안에 머무십시오. 당장에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니까요.

## 인간적 자질

이것 말고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사도직 실패에 원인이 될까요?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인간적 자질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인간적 자질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한 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앞서, 또 수도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류 가족의 일원이지요. 비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느 마을에 살면서, 그 마을이 역겹다고 말한다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는 프랑스인인

데 제가 줄곧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하고, 프랑스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저를 미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제 행동과 말에 있어서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고, 한국이 훌륭한 나라라고 말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 자질은 우리의 사도직에 필요합니다. 사람들, 비신자들은 거기에 신경을 아주 많이 씁니다. 우리도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고, 행실을 고칩시다. 필요하다면 동료에게 타일러 달라고 조언을 청합시다. 성미가 까다롭고 무례한 데다가 무지한 수녀는 사도직을 어긋나게 할 뿐이에요.

## 대신덕의 결여

우리는 단지 인간일 뿐 아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총으로 세 가지 초성적인 대신덕인 믿음, 희망, 사랑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도직에서 이 세 가지 초성적인 덕이 드러납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도직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덕을 나눌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요. 우리가 준다는 것은 다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믿음, 희망,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도직 실패는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항상 불평하고 투덜대며 징징거립니까?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넘치게 쌓아놓고 지냅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작고 비천한 이들을 냉대합니까? 이 덕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환하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고치도록 하세요.

만일 사제나 원장수녀, 장상에게서 천성적인 자질과 초성적인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정말 통탄할 일일 뿐만 아니라 고통의 커다란 원인일 것입니다.<sup>25)</sup>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에 토를 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에게는 더 높은 장상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 두려움

우리 사도직의 이러한 실패가 그저 우리 결함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등감에서 오기도 해요. 수도자들을 잘 보세요. 다 큰 어른들에게 겁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도직이 유아 상태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sup>26)</sup>

성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수녀들이 어린이들이나 환자들을 위해 일합니다. 물론 어린이나 환자들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고 쉽습니다. 성인들에

---

25) 이 문단의 끝에 육필 메모가 추가되어 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나 인간적 자질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계획 없이, 너무 이랬다저랬다 변하는 것……” “수도회의 좋은 장상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닙니다.”

26) 한글로 ‘소아형 전교’라는 메모가 삽입되어 있다.

비해서 두려움도 덜하지요. 또 아이들에게 몇 가지 기도를 알려주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착한 행동이나 희생 같은 것을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른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만약 우리가 어린이만 돌보는 데 그치고 그 애들이 더 크면 그만둔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일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행’입니다. 기도는 사실 부모나 젊은 사람들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녀들 수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J.O.C.F, J.A.C.F, J.E.C.F 등<sup>27)</sup>) 수녀들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환자들을 돌보는 수녀들도 많지요. 환자들도 성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들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환자들은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수녀들은 아무래도, 일어서 있는 어른들보다 누워있는 환자를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성인들을 돌보는 것은 책임이 더 크고, 뭔가 좋은 말들을 해야 하고, 바보 같은 소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아이들과 있을 때는 좀 그래도 탈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린 여공들을 위한 사도직에 수녀들이 없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수천 명의 소녀들이 공장에 있지만, 그들을 돌보는 수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사도직을 위해 충분한 수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녀들이 영혼을 잃기라도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니면 그 여공들이 수도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

---

27) 넓게는 가톨릭 운동, 가톨릭 액션의 다양한 평신도 조직을 의미하나, 여기에 약자로 표기하여 예를 든 것은 프랑스의 가톨릭 노동 청년회, 농민 청년회, 대학생회를 일컫는다.



고 있지요.

어린이, 병자 등만 돌보면, 수녀들이 지시를 내리거나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식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인들과 관계 맺는 모든 것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 수녀들이 스물다섯이나 먹은 젊은이들을 어린이 다루듯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수녀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은 수녀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긴 사실 공동체 생활이 성인들을 위한 이러한 사도직과 대치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새로운 수도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 사랑의 결여

수녀들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누군가 자기들을 가르쳤던 그대로, 교리를 가르치지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오직 한 가지,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요한 15,12)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가르칩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은 채로 교의를 가르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만큼 열심이 타오를 것입니다. 새로운 전례라든가 모든 모임에, 한 페이지라도 성경 독서와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리보다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믿고 지켜야 할 바를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쳐 왔는데 사도 바오로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이, 계명을 자연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애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고, 그분의 기적들은 항상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잘못을 피하게 하는 법률 조항이 아닙니다. 헌병 같은 감시자가 아니라, 사랑만이 법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느님에 의해 시작되어, 삶 안으로 내려갔지요.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법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쌓아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5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한 따름입니다. (갈라 5,1-6)

예수님께서서 규율을 가르치실 때면 언제나 아버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 5장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피해야 할 죄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우리 양심은 유아적으로 고착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모래처럼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불순한 죄에 대해 지나치게 말하는 반면, 믿음에 대해서나 애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앞선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지옥에 빠진 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탓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 그릇된 신심

또 다른 사도직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그릇된 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실 테지만요. 이 그릇된 신심은 무엇보다도 수련원에서의 양성 문제에서 옵니다. 우리는 수련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나요? 좋은 수도자로 양성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수도자’란 무엇입니까? 경건하고, 순종적으로 수련 잘하는 수도자요? 노래 잘하는 수도자, 성무일도 바칠 때나 미사 드릴 때 실수 하나 없는 수도자요? 일어나서 고개 숙여야 할 때 딱 맞게 일어나서, 그렇게 잘하는 수도자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세기에 살고 있어요. 활동 한 가운데 사는 수도자, 동시에 바로 이 활동들로 인해서 기도 안에 머무는 수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루카 18,1) 는 말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도적 활동은 결코 기도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의 양분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와 삶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에 이르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이 온종일 기도했다고 적혀있지 않아요. 다만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를 생각하셨지요!

젊은 자매가 수도원에 와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싶어서 입회해도 5~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겨우 서원을 하고 나서 본당에 파견합니다. 그 수도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바로 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직보다 기도가 우선시 되거나, 기도가 사도직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지요. 맡겨진 사도직이 맘에 들지 않으면 기도를 구실로 피해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회 규칙 안에, 사도직을 위해 기도를 두어야지, 기도를 위해 사도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수녀들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요. 만일 수도자들이 세상과 동떨어져 지낸다면 좋은 일을 정말 거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녀들이 용맹한 용사와 같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병사들을 얻을 것이며, 그들을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딱 그 시간밖에 올 수 없는데도, 수녀가 시간이 늦었다는 핑계로 저녁에 젊은이들 모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겠습니까? 이런 수녀들에게 기도는 ‘말’에 불과할 뿐, 애덕의 원천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신심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앞서 말한 그릇된 신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사회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의 경우 수녀들과 지내는 몇 시간을 빼고는, 그 나머지 시간을 그들 세상 환경 가운데서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속한 그 사회, 환경은 수녀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수녀들이 말한 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릴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사회 한가운데로 들어가, 수도원 밖에서 사도직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수녀들은 항상 세상과 동떨어져 지내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실제 현실을, 그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 Ⅶ. 오늘날의 동향과 새로운 수도회들의 설립

---

**사**도 바오로의 시대나 중세 시기 혹은 100년 전과 같이, 오늘날도 여전히, 아니 그리스도인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지킴으로써 말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이지 교회에 나쁜 표징일 터입니다.

수도생활의 목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1968년, 오늘날 생활 조건은 옛날과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 1968년을 중세 시기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실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회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날 수도회들은 몇 가지 규칙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사실 옛날의 똑같은 규칙에 머물러 있으면 젊은이들에 의해 수도회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없습니다. 또 수도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젊은이들이 이해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생활의 새로운 동향을 알기 위해, 이 시대의 새로운 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강의 주제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1. 물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
2. 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
3. 현재 일어나는 일들

## 1. 물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 <sup>28)</sup>

물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들이 워낙 많아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새로운 동향 중에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을 봅시다.

### 1) 소유권

옛날에는 지참금으로 가져온 재산을 수도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적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아직도 적법합니다만, 완화책을 도입할 수는 없겠습니까? 날마다 이 세상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들이 ‘모든 이를 위한 자본 소유’를 선언하지요.

세상이 발전하면서,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대한 공장과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전기, 교통, 우편, 큰 빌딩과 아파트 등……. 모든 것은 공공의 것이 되거나 국가 소유가 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이 주인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50% 정도는 부동산을 전혀 가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가 되는 삶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모든 재산을 포기합니다.

수백 가구에 이르는 작은 집들, 그에 반해 어마어마하게 큰 수도원!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수녀들이 재산 소유를 포기

---

28) 아래에 열거되는 사항들은 순서 없이 적어놓은 것이라고 한다.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하고, 세를 얻어서 아파트에서 삽니다.

## 2) 노동 조건

오늘날 노동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 안에서만 살았었지요. 좁게, 자기만 바라보며 큰 원의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단체나 조합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계를 사고 싶어도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협력해서 같이 합니다.

옛날에는 혼자 일했지만, 지금은 공장 하나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공장에는 수천 명이 일하기도 하지요. 옛날에는 소녀들이 공장에 가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공장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 여공들에게 누가 가까이 다가가고, 누가 그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수도원 안에서의 삶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요. 나가야 해요. 수도자들은 오늘날 사도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도직의 근본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 3) 정부의 변화

현대 각국 정부들도 마찬가지로 변화했습니다.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정부가 교육, 위생, 병원, 고아나 특히 질환자, 결핵 환자, 나환자, 장애인 등을 위한 애덕 사업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 왔지요. 이

런 일을 함에 있어서 수도회마다 그들의 자치권과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정부가 이 모두를 관할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권리이기도 하고,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사실 다 행입니다. 왜냐하면, 수도회들은 가질 수는 없는 자원과 수단을 확보하고, 역량 있는 관리를 정부는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 시기심은 전혀 없지만, 수도자들에게 문젯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수도자들이 기존에 해 왔던 이 사업들을 계속하려면, 요구되는 학위나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련자들 그리고 수련원에서 이루어지는 양성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물들은 정부에서 요구되는 규범에 따라 지어야 하고, 현대적이고 필요한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녀들의 사업은 정부가 하는 사업을 결코 능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요구되는 사항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맞추어 수련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지만, 새로운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들을 모두 넘겨주고, 종교적인 것, 교리, 세례, 제의방 같은 한정된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외교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러 가십시오. 공장과 가난한 이들 말입니다.

#### 4) 문화와 풍습

또 오늘날은 문화와 풍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배우지 못한 사람



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날 어린 소녀들은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텔레비전, 영화를 보고 신문을 읽음으로써 배워 나갑니다. 또 집에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수녀들보다 그 아이들이 훨씬 많이 압니다. 여러분, 장상이 아주 젊은 자매에게 옛날처럼 수도복을 빨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매 집에서 세탁기로 쉽게 했던 것을 말예요.

옛날에는 대세를 주려면 걸어서 가야 했으니, 시골에서 수녀 한 명이 고작 20명 정도의 대세만 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자전거로 다니면 40명, 아니 그 이상도 대세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수녀 양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녀들은 신학을 배워야만 합니다. 로마나 큰 도시들은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듣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녀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요. 심지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 수녀<sup>29)</sup>도 있다니까요!

또한, 청빈 서원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난은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난이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 처럼 사는 것이며, 우리 사도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민중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신 발명품들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근심을 덜고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 5) 여성 교육

도처에 인구수가 믿기 어려울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

29) 불어로 '잔다르크 수녀'라고 적어 놓았다.

발달로 사람들이 점점 더 장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옛날엔 없던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산아제한이 그러한데, 이와 관련된 교회 가르침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여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특히 수녀들 몫입니다. 영화나 소설 등에서는 혼인의 신성함이 자주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성들에게 하느님의 원의를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요리, 재봉, 건강 등과 관련된 강좌, 신앙 학교 캠프 등이요. 이렇게 예전보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대식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 6) 교통

이제 교통에 대해 말해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전보다 여행을 훨씬 많이 합니다. 사실 더 쉽고, 더 빠르고, 가격도 더 저렴해졌지요. 젊은 자매들은 어릴 적부터 자동차, 기차, 비행기로 여행을 해 왔습니다. 수녀원에 입회하면 그 모든 여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할 때, 누가 감히 입회할 엄두를 내겠습니까?

## 2. 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

신앙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지만, 믿는 방법과 신앙을 둘러싼 상황은 옛날과 오늘날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교의라든가, 옛날에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옛날에는 신앙이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교황님을 믿고, 교회를 믿었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남녀 한 쌍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여러 쌍을 창조하셨는가.’ 하고 학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 직접 만들어졌다고 믿지요. 학자들은 정반대로 진화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한낱 진화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황님을 믿었는데, 프로테스탄트가 특히 그러하고 정교회도 교황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예전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기에, 신앙에 있어서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교회가 허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해줄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지닌 예전과 다른 특성들은 모두 오늘날의 교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1) 구체화 된 실천

요즘 젊은이들은 거짓이나, 비논리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 거짓말쟁이들이었다고 비난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교리반에 보내면서 정작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연기꾼들이라는 거죠.

민주주의, 공화국, 심지어 조국 등과 같이 공허한 말은 젊은이

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킵니다. 사랑이 만약 실재가 아니라면 비판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저개발국 사람들을 도우러 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집을 짓고, 망가진 집을 고쳐주는 모습 등을 봅니다. 그들은 효용성을 추구합니다.

## 2) 학문과 이해 선호

젊은이들은 흔히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이건 원래 늘 그래 왔던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아주 싫어하는 논거입니다. 히피들은 일부러 전통에 맞서서 괴짜 같은 차림을 하고 다닙니다. 머리를 기르고 어떤 이들은 보란 듯이 동거를 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라틴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로 기도를 바치고 싶어 하지요. 정확한 시간에 나누어 바쳐오던 성무일도를, 이제 더 이상 독서기도, 새벽기도, 아침기도라고 따로 말하지 않고, 그냥 아침기도라고 합니다.

단식이나 금육 같은 옛날의 금욕, 고행보다 젊은이들은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선호합니다. 믿음, 희망, 사랑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그들은 그저 인간적 자질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의, 대화가능성, 특히 배움 정도를 말입니다. 오늘날 사제, 수도자들은 다방면의 것들을 두루 알아야 합니다. 의사와 만나면 의학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농부와 만나면 농업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요. 수도복을 입은 사람도 현대적인 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젊은이들이 더 깊은 학문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또 그들이 전적으로 옹호합니다. 특히나 신학 분야에서 그렇지요. 저는 수녀들이 수련기를 마치고 1년 정도 함께 신학을 공부하는 집이

생길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든 어디 다른 지방에든, 적어도 교회의 큰 주제들만이라도 배울 수 있게 말예요.

### 3) 복음에 따른 삶 추구

요즘 수도회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은 점점 더 복음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해요.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 조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읽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조직 아래서 진짜의 예수님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몇몇 새로운 수도회들은 서원과 수도복을 없애고 있지요.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은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복장이거나 주거 등에서 지나친 것을 피해야만 하는 것이예요. 민중들의 삶과 차이가 없도록 말이죠. 또한, 이들에게 있어 ‘복음은 가난’입니다.

모든 부의 허울을 떨리하고, 어떤 새로운 수도회들은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연금도, 지참금도 거부합니다. 주교가 그들 집까지도 원한다면 가질 수 있습니다. 대가로 다른 것을 내어주지 않아도요.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참으로 이상(理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시대에 이미 성녀 글라라도 ‘가난할 특권’에 대해 자매들에게 권고했으며,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살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로마는 여성들에게 지나친 가난의 생활을 금지하긴 했습니다만…….

여하간 가난의 정신이 아주 구체화되다 보니, 젊은 수도회들 사이에서 노동이 점점 더 영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수도자들이 생계를 위해 벌이를 하고, 직접 두 손을 써서 일하며, 그 노동의 결

실을 가지고서 가난한 이들을 돕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는 단지 비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과 소유에 맞선 자유의 문제입니다.

#### 4) 기쁨

젊은이들의 또 다른 특성은 기쁨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 등이 하나의 기쁨이지요. 중년이 된 옛날 수녀들은 무어라고 말할까요? 수도원은 자기 죄를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비탄의 집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에게 낳아 주심으로써 인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셨듯이, 젊은이들은 기쁨을 썩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토록 고통받고 고되게 사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한가운데 말이예요.

#### 5) 사랑의 이상

또한, 저는 이 ‘사랑의 이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덕이지만 두 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특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오늘날은 -물론 여전히 하느님 사랑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더해 점점 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로 시작한 작은 수도회의 수녀 하나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는 열 살 된 어린 소녀 하나를 돌보았습니다. 그 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예요. …… 그 뒤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어느 가엾은 자매를 재워 주었습니다. 누군가 저

희에게 그 자매의 사정을 알려 주었을 때, 그녀는 벌써 다리 밑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 그다음에 저희 수녀원에 재워 주었던 이는 너무나 피로에 지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두 쌍둥이 자녀도 돌보았지요. 몸이 마비된 자매 하나도 저희 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묵었던 곳은 저희 수녀원에서 제일 좋은 방이었지요. 저희는 마비된 그녀를 매일 매일 작은 자동차에 태워 미사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큰 기쁨이었거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무언가 하느님이 요청하시는 것으로 보일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 안에 교회 정신이 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고 이미 성 야고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3. 현재 일어나는 일들

이 주제는 너무나 방대해서, 여러분에게 수도회들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회들 중에는 예전에 존재했던 수도회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 1) 예전에 존재했던 수도회들

##### ① 관상 수도회

봉쇄 수도원에 사는 수녀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침묵과 금욕 생활을 통한 기도와 봉헌입니다. 쇠창살로 세상과 분리되어 지내면서, 오늘날의 움직임과 가장 접촉을 덜 하는 수녀들입니다. 그들은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봉쇄 수도원은 새로 설립된 수도회가 없습니다. 옛날 수도회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봉쇄 수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지침 몇 가지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1. 수도원 안에서 유급의 일을 한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제의 등)
2. 수도회의 협력자들과 가족을 형성하여, 고립을 막기 위한 상호 관계를 맺는다.
3. 간행물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통한 특정 사도직을 구성한다. (유혹 중의 사제들, 환자 등)

우리는 지금 관상 수도회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것에 중점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 ② 활동 수도회

아직 공식 지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교황님과 주교님들이 활동 수도회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활동 수도회들이 아주 많고 그 목적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서의 자격증의 필요성을 수차례 상기시키는데, 가르치거나 환자를 돌보거나 여름학교 등을 맡아서 하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로마는 수도회들로 하여금 사도직 사업에 있어서 당국의 감독을 따를 뿐 아니라, 보건, 교육 기자재, 병원, 건축 등에 있어서 최신 법령을 따르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야 곳곳에서 개선되는 점이 많고, 수도회의 많은 사업이 참으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수도회가 하는 사도직 사업들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수도회들이 그 많은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가 수도회들에 점점 더 요구하는 바는, 사도직을 보다 전문화, 특수화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사업 말이에요. 노인이면 노인, 불우한 어린이면 어린이, 병원이면 병원…….

오늘날 이러한 개선의 움직임은 수도원 생활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녀들 중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므로, 장상은 더 이상 옛날처럼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명령하는 단 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장상은 책임을 나누어지며,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하지요. 나머지 수녀들이 더 이상 그저 명령의 하수인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공동의 일을 함께 해 나감으로써 수녀들은 점점 더 한마음, 한몸이 되어 갑니다. 이것은 순명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순명을 자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순명은 더 이상 노예의 순명이 아니라, 어른의 순명, 성숙한 순명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움직임은 신심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수녀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기도와 사도직의 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심 생활의 의무가 우선시되었지요. 하지만 오늘날은 사도직에 기도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 때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핑계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학교 선생을 하는 수녀에게 공동 성무일도를 구실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고 강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수녀에게 수업에 방해되는 것을 의무지울 수 있겠습니까? 간호사 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영신수련을 다 함께해야 한다고, 환자들을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이제는 수도회 규칙에 점점 더 자율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었던 묵상, 성무일도 등이 여전히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각자가 더 적합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대체로 자율성을 주고 있지요. 여기에 맞추려면 수녀들이 마음의 개방성을 지녀야 합니다. 보다 넓은 안목을 지니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이 회자되는 텔레비전이나 영화 장면들 있지요. 어린 애들이나 사람들이 수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올 때, 그것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파리에 있는 가톨릭 영화 센터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영화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영화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수녀, 사제들을 위해 시사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화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의적이고 직접적인 탁월한 선전이 되기도 하며, 혹은 반대를 통한 역선전이 되니까요) 이러한 태도 변화는 멋지죠!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많은 수도원에서, 더욱 활기 넘치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 언어로 된 전례와 음악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회 안에서도 두 개의 계층이 존재하던 것을 점점 더 없애고 있고요. (가르멜 수녀회, 성심수녀회, 생 모르 수녀회 등)

## 2) 최근 설립된 수도회들

최근 설립되는 수도회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새로운 사고방식과 젊은이들의 원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도 다 살펴보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 ① 관상 수도회

이젠 더 이상 관상수도회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새로운 수도회들 중에 많은 곳에서 자신들 수도회가 관상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규칙이 더는 옛날과 똑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봉쇄구역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시간 동안 성체 앞에 머물며 조배합니다.

새로 설립된 수도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라고 한다면 샤를 드 푸코의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예수의 작은 형제회’가 있지요. 그들은 서울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들은 나자렛 예수님의 삶을 닮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예요. 그들은 모든 사도직 직무와 사업체의 일을 거부하고, 간접적으로 사도직을 합니다. 그들 삶을 온 세상 구원을 위해 봉헌하며, 많은 시간을 성체 안의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느님께 기도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 수녀들은 가난한 이들이 사는 마을에 살기를 원하며, 주변 집들과 비슷한 조그마한 집에서 둘 셋이 함께 살아요. 홍콩에서는 거룻배 위에서 산다든가……. 거기서 가난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우물에 물을 길으러 가지요. 가난한 이들 한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가능하다면 심지어 공장에 다니기도 해요. 살림을 한다든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말이나 활동을 통한 사도직이 아니라, 존재의 사도직인 것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예요!)

그 수녀들은 순명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녀들은 거룩함이란 무엇보다도 철저한 순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들은 애덕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여깁니다.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에는 규칙이 아주 적고, 많은 부분 자율성에 맡겨둡니다. 또 수련기에 의지와 용기를 교육하는데에 강조점을 둡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위험하고 어려운 곳 한가운데나 험난한 장소에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정말이지 용기를 가져야만 하니까요! 세상에는 소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수녀들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 ② 활동 수도회

한편 많은 젊은 여성들이 사도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단지 증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목표 완수에는 계획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몇몇 수도회들을 보세요.

### 도미니코 농촌 선교 수녀회<sup>30)</sup>

다른 도미니칸 수녀들처럼 수도복을 입고 (하지만 일할 때는 잠시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단순 서원을 하며, 성 도미니코의 정신대로 살고, 성무일도를 바치지요. 하지만 그들이 수도생활을 하는 장소가 농촌입니다. 그들은 농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물론 사제들을 돕거나 여러 사업을 돕고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농사일에 참여하고, 농사꾼들과 접촉하기도 하죠. 농촌의 수녀들은 특별한 복장을 하지 않고, 밭에서도 전례 기도를 바치거나 일합니다.

---

30) Les Soeurs Dominicaines missionnaires des campagnes

### 노트르담 드 시온 수녀회<sup>31)</sup>

노트르담 드 시온 수녀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하는 사복 수녀회입니다. 그들의 사도직은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관상에서부터 연구, 사회사업까지 다양하게 말이죠.

이밖에 젊은 형제들의 수도회 중에, 남녀 노인들을 위한 ‘예수 성심의 형제회<sup>32)</sup>’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노인들을 찾아내 모시고 살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집을 삽니다. 노인들을 마치 부자처럼 본채에 모시기 위해서 말이죠. 형제들은 본채 옆 행랑채에 삽니다! 또 다른 수도회들을 보면, 수녀들 중에 사회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는 수도복을 입고, 밖에서는 특별한 복장을 하지 않지요. 이런 수녀회가 많습니다.

### A.F.I.

또 뱅상 레브의 수녀회<sup>33)</sup>도 있어요. 그들은 아무런 서원을 하지 않고, 특별한 수도복도 입지 않지만, 이교도가 대부분인 나라에서 수녀처럼 살 것을 약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의 폭이 크지요?

---

31) 역주 : 정식 명칭은 Ancelles de N.D de Sion인데, 시온 수녀회라고도 칭한다.

32) 역주 : Les Frères du Sacré-Cœur, 이전 명칭은 예수 마리아 성심 수도회였다. 수도회 소개 자료에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한 사도직이 중심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3) 역주 : 국제 가톨릭 형제회 (A.F.I)

## VIII. 관상에 대하여

---

P. Voillaume의 강론 34)

1973년 1월 9일 35)

**우**리가 인간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관상생활입니다. 아시아만 한 번 보더라도 인도 사람들, 불교도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시끄러운 것에 싫증을 느끼고, 관상적인 삶과 침묵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주의의 20세기를 지나, 이러한 관상생활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두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은 그 둘은 하나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관상과 애덕활동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수도회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구별 짓는 단 한 가지 차이, 단 하나의 독특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상의 분량과 활동 생활의 분량 차이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견주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34) 역주 : 여기서 브와욘 신부는 René Voillaume (1905~2003)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메모 내용을 보아 성재덕 신부 고유의 강의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5) 원문의 여백에 ‘지난 화요일에 들은 것, 미안, 요약’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1. 한 부류의 사람들은 활동적 삶에만 초점을 두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오직 인간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본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모든 활동과 생각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만 몰두하고 하느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2. 이들과 정반대로 하느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관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3. 세 번째 부류는 하느님과 이웃 사랑 둘 다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이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있지요.

오늘날 관상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많은 학자들은 하느님을 부인합니다. 몇몇 사람은 “하느님은 죽었다. 20세기에 인간은 더 이상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관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뿐이며, 인간 상상의 열매라고 여기지요.

오늘날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대신에 과학에 대해 생각합니다! 과학이야말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으니까요. 사람들은 너무나 물질주의적으로 되고 말았기 때문에, 관상적 생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란 집,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를 소유하는 것이며, 아내를 갖는 것, 다달이 넉넉한 월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모두를 갖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세례 받은 이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상 생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기도를 믿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기도를 한 대봐야 아픈 사람을 낫게 해 달

라거나 비가 오게 해 달라고 청하는데, 아픈 사람이 낫지 않고 비가 내리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과학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물질주의적인 삶은 교회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들이나 이슬람교도들도 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들 신자들 안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과학에서 우리보다 약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반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상에 대해 우리는 희망이 많습니다. 책, 신문, 영화, 텔레비전 등의 매스컴에서 옛날보다 하느님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이 있다고 말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우선 과학을 들 수 있습니다. 참된 과학, 참된 과학자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으로 사셨던 인간이었습니다. 추기경님이 성탄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요, 구체적 시간 속에 구체적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들은 엄청나게 훌륭하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기에,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느님 없이 세상을 건설하려 애쓰다지만, 그것은 완전한 실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처럼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니, 많은 이들이 그들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교황님 말에 귀 기울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2. 사람들이 관상 생활로 되돌아옵니다. 가톨릭의 여러 가지 운동을 보세요. (레지오 마리에, 꾸르실료, J.O.C) 성경을 점점 더 많이 읽고, 혼자서나 혹은 그룹으로 모여서 묵상하고 나눕니다. 떼제 공동체를 보세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일치한 관상 공동체인데 지난 해 석 달 동안 4만에서 5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묵상하고 토론하였다고 해요. 히피들도 보면 (그들 안에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 현대 사회, 물질주의적인 세상을 더는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가 그리스도를 찾고, 어떤 이들은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나 예수님 같은 차림으로 입고 다니기도 해요. 그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지요.

이렇게 오늘날의 문제들에 진저리가 난 젊은이들은 에큐메니즘을 원합니다. 더 이상 신학적인 논쟁을 원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지요. 그들은 충분하다고 할 만큼 관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교회와 사제들을 불신합니다. 교회와 사제들이 관상을 가르칠 줄도 모르지요. 이런 결함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3. 또한, 젊은이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만약 삶의 목표가 놀고 마시고 먹는 것이라면, 충분하지 않은데……’ ‘만일 삶의 목표가 조국이나 삶의 안락함, 돈이라면 이것도 역시 불충분한걸.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유일하기에 그들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4. 관상의 부흥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지는 많은 곳에 피정의 집, 침묵의 공간이 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가톨릭, 개신교, 불교에서 수원, 광주, 부산, 서울, 대전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소음에 지쳐 침묵을 갈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이곳에 사람들을 끌어 오고 싶다면, 침묵이나 성가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기도 학교가 있는데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참선(參禪) 학교라든가…….

성령께서는 어떤 한 가지 방법에 묶여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기도의 학교들도 관상의 욕구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5. 사람들이 성체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성체를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미사가 끝난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기도 했었지요. 성체를 한 구석에 모셔두거나 아예 치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성체를 요청하고 있지요. 폐제에서도 성체를 모셔두기로 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자기들 집에도 성체를 모시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사제나 수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성체를 모셔 놓으면 안 되나요? 교회의 시작 때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성체를 모셔놓지 않으니 너무 짜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체는 하느님의 실제적 현존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항구한 희생이요 그분의 영속적인 기도입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은 인간에게 이로운뿐입니다. 열 가구 정도를 묶어,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며 집에 성체를 모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더 관상적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생활은 단지 목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끄는 생활이니까요.

## IX. 주님의 증인됨<sup>36)</sup>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 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간, 성 베르나르도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겠지요. 매일 아침, 그는 속으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베르나르도야, 너는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곳 수도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위대한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느님 뜻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실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뜻입니다. 우리가 유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36) ‘피정’이라는 제목의 이 강의록은, 현대사회와 수도생활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따로 어느 피정을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문에서는 이 피정 강의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한국어로 적어놓았다.

1.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 이 질문에 따라 생각할 것이다. (실제적, 현실적, 개인적)
3. 주님의 증인이 되시오.  
(거룩히 지내면서, 만족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교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므로 수도자든 아니든, 남녀노소 누구나 “하느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항상 자문해야 합니다. 특히 피정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지요.

1. 그런데 이 질문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 여러 사람이 같은 질문을 던졌고, 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진지하게 그 문제를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이가 주님께 직접적으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십사는 기도에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고장과 부모를 떠나 서쪽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모세는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하느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중도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 한 젊은이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마태 19,16) 오순절에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사도 2,37) 성 바오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물었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22,10)

대대손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던져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던 이들은 진지하게, 참으로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 구원을 갈망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진심 어린 것이 아니었고,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찾았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예를 들면 그릇된 바

리사이들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리사이들처럼 하지 말고 성인들처럼 합시다.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피정 동안 숙고하고 자문해 봅시다.

2. 피정 동안 이런 숙고를 할 때 염두에 둘 것은 그것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각자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정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숙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강론을 듣기는 하지만 금세 잊어버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성숙하지 않은, 어린애 같은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딱 들어맞지요.

숙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냥 날려버린 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피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숙고하지 않으니 피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몽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수녀들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기계적으로 기도할 뿐이고, 입술이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피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피정을 제대로 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침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지요.

여러분이 피정 동안에 해야 하는 숙고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더 이상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죽을지 누가 압니까? 오늘, 바로 지금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고칠 것은 없습니까?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한 피정 동안에 하는 숙고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들의 영혼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관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상이라 할지라도, 피정 동안은 여러분이 책임을 맡은 수도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숙고는 자기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시간을 얼마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마태 16,26)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나는 좋은 수도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피정 동안에 우리는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야 맡은 일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정 동안에는 또한 예수님처럼 기쁨, 평화, 고요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두려움, 질투, 근심을 버리고 평온함 중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 희망, 사랑이 바로 그것이지요.

3.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승천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

사도들은 그분의 첫 증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모든 이에게,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몸짓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전 생애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증언하려는 다른 사람을 좋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인

우리들도 그분처럼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마태 11,29)

증인인 우리도 역시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분은 가난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그분은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1코린 5,7)  
37)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 2,8)

증인인 우리도 순종합시다.

그분은 거룩하셨습니다.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묵시 15,4)

증인인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성인들은 전 생애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미지, 형상이었기에 그분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Martur에

---

37) 한글로 ‘봉사, 소비녀 노릇’이라는 메모가 추가되어 있다.

서 유래했습니다. “자기 피를 내어주는 자” …… 우리도 순교자들 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매일, 한 방울 한 방울 바쳐야 합니다. 좋은 수도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말입니다. “너희는 ……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사셨던 예수는 성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 동안 아버지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 아들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 바로 그분의 증거자 말입니다.

옛날에 아주 오랫동안, 미사 때마다 요한 복음의 시작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의미를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 언급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 1,6-7)

승천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다시 하셨지요. 복음사가 요한은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요한 1,12)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언과 우리의 증언을요. 많은 이가 우리의 증언을 거부하는데, 사도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요한 복음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sup>38)</sup>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우리 말을 듣는 것에 대한 거부, 우리가 증거할 사명…….

---

38) 원문에는 3을 4로 고쳐 써 놓았으나, 본문에 실제로 3가지만 언급하고 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성자를 믿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놀랍게만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사도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 모델입니다. 사도들은 참된 증인이었으니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해요. 또한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반영이요 재현이니까요.<sup>39)</sup>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야만 합니다.<sup>40)</sup>

둘째, 여러분은 인간적인 존경받기를 끔찍이 피하여 물리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세례 받은 자로서, 수도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마태 10,32)

셋째,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 사도직으로, 교리교육으로, 모임으로……. 다른 이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쁘다’고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넷째,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고통받고 고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분 증인이 됩니다. 진복팔단에서, 특히 여덟 번째 말씀

---

39) 역주 : 원문에 ‘image, photo’ 라고 표기되어 있다. 번역 감수자의 조언에 따라 ‘반영, 재현’으로 의역하였다.

40) ‘증인은 진실을 말합니다.’ 라는 메모가 추가되어 있다.

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마태 5,10-11)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고, 고통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정 동안 “여기 서울에서, 한국 땅에서, 주 그리스도의 더 나은 증인이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물어 보십시오.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비추어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내 몫을 폐허로 만들자  
폐허가 된 그곳이 나를 향해 통곡한다.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레 12,11)

## X. 수도생활이란?

---

(두루 인사 나눔)

**저**는 여러분에게 수도규칙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생활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13,44-46에 나오는 예수님의 짧은 두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는, 수도생활이 무엇인지 더 적절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그 말씀 자체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나서 수도생활과 관련지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마태 13,44-46)

1. 첫 번째 비유에 언급되는 인물은 아마도 농부나 상인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상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 상인이라고 합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영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무가치한 것과 귀한 것을 판별할 줄 알았습니다. 보물은 명백히 가려낼 수 있었겠지만, 원석은 사금파리마냥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 상인은 유리처럼 빛나지 않는 데도 보석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석을 가지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챈니다.

두 사람은 이 보물이나 보석을 사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팔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주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지요. 값이 꽤나 비싼데도 그들은 더 비싼 값에 되팔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물과 보석(진주)을 사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집, 가구, 가족들이 가진 것도 모두요. 분명 여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깊은 숙고 후, 그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굳히고 모든 것을 팔지요.

복음은 ‘그가 기쁨에 넘쳐……’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속으로 “이게 얼마나 수지맞는 일인가! 엄청난 부자가 되겠지”하고 말하며 웃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물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진주를 가진 다음, 그것을 다듬고 윤이 나게 닦아 되팝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그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영리하고도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2. 이 짧은 두 개의 비유는 우리에게 수도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보물을,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화 은총입니다. 영혼의 생명이고 우리가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상에서 누릴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수도생활이고요. 이 보물과 진주는 우리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시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아드님과 이루시는 일치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어리석게도 보물 곁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 은총으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에서 말한 그 상인은 누구입니까? 상인은 바로 여러분이고, 또한 저도 됩니다. 그 상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도 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볼 줄 압니

다. 번쩍이는 것이 우리를 헛갈리게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청난 차이를 구별할 줄 압니다.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기처럼 사라질 지상의 부귀를 구별할 줄 알아요. 우리는 변치 않는 창조주를 열렬히 갈망하고, 사라져 버릴 피조물을 물리칩니다.

이 밭과 진주를 사기 위해, 두 상인은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우리도 부모와 조국과 친구, 형제 자매, 집을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다 팔았으면서도 얼마나 이득인지, 얼마나 잘 샀는지 한 번 보세요! 수도자는 보잘 것 없고 유한한 피조물들을 팔아서 그 대신에 창조물을 산거라고요. 무한하시며 아름다우신 그분어요. 우리는 영리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마태 16,26)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도원에 옴으로써 우리는 번쩍거리는 것, 예복 (수도복 자체), 안락함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수도원은 걱정 없이 더 잘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반대로 더 가난하게, 더 많은 염려를 하며 사는 곳이죠. 그러나 이 가난함과 염려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특히나 수도원에는 고된 공동생활이 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참아주어야 하고,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수도원에는 커다란 기쁨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지요. 수도원 삶에 고통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수도자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파는 사람입니다. 이 값진 진주란 하느님과의 우정, 하느님과의 일치를 말합니다.

3. 수도생활이 무엇인지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네요. 수도자도 세례 받은 사람 중 하나지만, 보통의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

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수도자는 자신이 사랑해야 하고, 영원하며 유익한 오직 한 가지는 하느님뿐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이 아닌 것과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멀리합니다.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 수도자는 마음을 흘뜨리고,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자신의 마음을 갈라놓을 뿐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수도자는 오직 한 가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오로지 하느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수도자는 아주 커다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별로 열정적이지 않은 수도자는 오롯하게 하느님을 소유하지 않고, 큰 뜻을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저 근심을 피하려고 세상을 떠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이는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며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자인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반대로 수도자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완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수도자들이 불행하다고 말하지도 맙시다. 행복은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잊은 사랑이니까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에만 빠진 사람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또한, 수도자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충실함은 마음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도자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 청빈, 순명의 삼대 서원을 발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공동생활을 하나 추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수도자는 그것을 서원을 통해 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과 쾌락과 안락함, 자유를 위해 살지요. 그러나 수도자들은 하느님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앞서 살펴본 복음에 나온 그 상인처럼 모

든 것 -돈과 쾌락과 자유- 을 팔아, 예수님의 모범과 말씀을 따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하고 정결하며 순명하는 사람들”

수도자는 자기처럼 하지 않는 영혼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수도자는 더 완전해지는 것, 바로 그 한 가지만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 공동체의 형제애 (형제적 사랑)

수녀들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공동체 형제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다투지 않고 한 집에 함께 산다는 것 말이에요. 여성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을 보면, 성 교회는 틀림없이 거룩하고 담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이 형제적 생활에 대해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다 큰 하나의 신앙으로 모아들이시고, 비신자들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무기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녀들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자연히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며, 성소도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재빨리 알려질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어떤 좋은 일도, 사도직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도 그 수도회에 수련자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악마는 공동체에 언제나 증오의 가라지를 심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점을 주의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사도행전 2,42-47을 읽으며 시작합시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사도 2,42-47)

첫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공동생활이 수월치 않았고,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독자적인 것을 도로 찾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은 공동체적인 삶을 계속해 나가고자 노력했고, 이것이 최초의 남녀 공동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것이 1세기 당시 친숙한 상황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수녀들의 모든 공동체는 사도 시대처럼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1.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마르 12,28-34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



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마르 12,28-34)

예수님께서서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간접적으로는 모든 이에게, 특히 당신이 가르치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주님께서서는 첫째 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다른 이를 사랑할 의무도 같은 계명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각자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잘 알지요. 한없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태 7,12)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사랑으로 모인 모든 수도 공동체의 일반 원칙입니다.

2. 형제적 사랑의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수도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다른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자 힘썼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열성이 아직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 혹은 다른 이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가진 교만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하느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서는 이를 두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비유에서 반대되는 두 사람을 빈번하게 등장시킵니다. 바리사이와 세리, 처음과 마지막에 온 포도밭 일꾼, 큰아들과 방탕한 아들……. 다른 말씀을 보면, 비유는 아나나 가르치신 행위들 안에 이것이 드러납니다. 바리사이들과 자캐오, 바리사이들과 마테오, 시몬과 죄 많은 여자…….

매번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한 사람은 스스로를 훌륭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며 바라봅니다. 바리사이를 예를 들어 보면, 그는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자화자찬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십일조를 바친다고 말이지요. 마치 그가 옳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는 곳곳이 서서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온 포도밭 일꾼도,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세리, 저 마지막에 온 일꾼, 당신의 저 아들, 저 죄 많은 여자…….”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은 반대로, 감히 눈을 들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칩니다. 그는 남을 쳐다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천함을 너무나 잘 알아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생각을 하지 않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충분히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적 사랑이 없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서로 잘 알고,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이 시선을 내리고 산다면 우리는 오직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만 겸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장엄한 순간, 교회를 세우신 그 순간, 당신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시고, 첫 미사를 드리시며 자신을 사도들에게 넘겨주실 뿐 아니라, 해치려는 자에게 당신을 넘기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은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 13,13-15 참조)

만일 우리가 다른 이를 더욱 사랑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간에 부자처럼 던져 주는 것 보다,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는 것이 낫습니다. 스승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3. 공동체에서 그렇다면 누가 사랑을 해야 합니까? 모두요, 예외 없이 모두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죽이는 일은 우리가 택하여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모든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 5,48) 바로 그럴 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버림받은 이들,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헐벗은 이들, 이방인, 감옥에 갇힌 이들,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 작은 이들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를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도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증오하는 이, 저주하는 이, 때리는 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이, 싸움 거리를 찾는 이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것처럼 들립니다.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마태 5,23-24) 여러분이 형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원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가 품고 있는 원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c) 하신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를 비추어주고 타오르게 하는 빛과 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분은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무슨 공덕을 쌓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셨지요. 사도들이 지닌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 죄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선하신 분이었기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상대의 성품, 자질을 보고 나서야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우린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고 변해 버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착한 목자처럼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 23,3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다시 말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른 수녀들을 사랑하기 위해, 날마다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참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저 가끔 하는 애덕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삶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아픈 자녀 옆에서 밤새 깨어 있을 때, 자연스레 사랑으로 합니다. 엄마니까요. 우리도 이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1요한 4,20)<sup>41)</sup>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며, 면병입니다.

## 5. 사랑과 삼위일체

형제적 사랑에 대해 깊이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이의 그 사랑은 하나의 덕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성 요한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 또 “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요한 4,7) 라고 말했으니까요.

사랑은 커다란 강과 같습니다.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나와, 성령 안에서 발현되고, 성자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말씀을 보세요. 다시 이 사랑의 강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요한 15,9)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다른 이들에게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부께로부터 오는 이 사랑의 강을 막으면, 양화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말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과 말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

41) 원문에 5,20 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다.

## XI. 수도자가 본당에 가져다주는 것과 본당이 수도자에게 주는 것

---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1코린 3,6)

사도 바오로 시대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직에 대해 말할 때면 흔히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을 보는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일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도들은 그저 교회로부터 파견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고, 교회가 그를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업, 업적이거나 수도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앞서 교회를 보는 것, 바로 이 점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빈센트 드 폴이나 아르스의 요한 마리아 비안네처럼 모든 성인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앞서 교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본당 신부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교황,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은 신자들과 상대적으로 멀리 있지요. 그 증거 중 하나는, 그들이 고해성사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사제들은 본당이라 부르는 작은 구역을 관할하는데 그의 모든 권한은 파견된 데에서 옵니다. 곧 그는 신앙의 증인이요 교회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수녀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도 본당에

파견되었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는 본당 신부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본당 신부, 수도자, 교리교사, 그리스도인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그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1968년, 지금, 이러 저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지요. 그렇다면 수녀들은 본당에 무엇을 가져다주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본당 신부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좀 다른 문제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오직 수녀들이 본당에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본당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수녀들이 본당에 가져다주는 것

수녀들은 오직 자신의 존재를 본당에 가져다주어야만 합니다. 수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도자들이 누구인지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보고서만 사람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학교 교장을 평가할 때, 학교 건물을 짓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시험 결과가 우수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따져 봅니다.

지금 사람들,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는 수녀들에게 결과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좋은 수녀의 상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굳게 하려면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녀는 그저 학교 선생이나 간호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독립된 삶도 없으며, 절대 혼자 살지 않는 그런 여성이지요. 좀 더 좋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가난하고 순명

하며 공동체적인 동정녀'입니다. 수도 삶 전체는 그저 이것입니다. 수녀가 본당에 가져다주는 증거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만일 수녀가 수도생활을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 수녀를 통해 드러나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녀가 자기 수도생활을 비난과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거나 심지어 지나친 세심증을 가지고 산다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5)

수녀들이 본당에 가져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삶’입니다. 청빈, 순명, 정결 안에서 행복한 삶이 용솟음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상에서 당신 자신이 이미 정결하고 겸손하며 가난하게 사셨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수도자들에게서 진정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본다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행복하고 안정된 모습을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막힌 증언이지요.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성 빈센트 드 폴은 사랑의 딸 수녀회 수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고향과 안락함을 떠나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딸이고,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낳으시고, 당신 영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좋은 수녀를 봄으로써 예수님 당신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당에서 사람들이 수녀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수녀들 삶의 증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사제나 교리교사의 강론, 강의보다 더 강력한 하나의 언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저 수도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장상을 통해 본당에 파견되었습니다. 또 장상을 통하여 교회로부터 파견되



어, 이러 저러한 일을 하기 위한 대표자요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sup>42)</sup>, 학교 선생, 간호사, 사회 복지사, 교리교사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옛날과 같지 않고, 내일과도 다릅니다. 과거는 죽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단지 지금 현존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언제나 내일을 생각하는 것은 몽상에 지나지 않아요. 또 ‘오늘’이라 함은 불쌍한 이들, 기뻐하는 이들……, 이러 저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학교, 병원이라든가 예전에 없던 특별한 기술 등이 있지요. 환자, 학생, 가난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자격증이나 학교, 병원에서의 최신 기술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또한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지 비신자 간호사나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사와 간호사로 일한다 해도, 여전히 수도자입니다. 그러기에 환자들, 어린이들, 만나는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생활한 성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짓, 말과 격려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 주도록 하세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그저 병을 치유하고 학생들을 시험에 통과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본당에 있는 수녀들은 보통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일합니다. 아픈 이를 돌보는 수녀, 교리를 가르치는 수녀, 사회 복지사 일을 하는 수녀들이 있지요. 그런데 조금씩 이 모든 것을 하는 수녀들도 있습니다. 제의방 일부터 교리 가르치는 일, 부인들이나 젊은 여성들 혹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단체들 일까지 말이

---

42) 이 문장에서 ‘오늘’이라는 말을 대문자로 써서 강조 표시해놓았다.

죠.

이어서 저는 앞의 두 가지 일이 나라에서 하는 병원, 학교와 경쟁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쟁 구도에서는 우리 역할이 좀 어려워지고, 일부 비신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며 우리가 하던 것이 사라지는 추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마치 제가 ‘우리가 해 왔던 그 일들이 20세기에는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지는 마세요. 병원, 학교 등 우리가 옛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지금은 다행히도 국가가 하고 있지요.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수도자들의 역할은 점점 더 종교적 역할로, 가톨릭 활동으로, 사회사업으로, 가난한 이들에게로, 남녀 노동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간호 수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병원이나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는데, 아픈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지요. 또 다른 수녀들은 환자들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소명이예요! “가난한 환자들의 하녀”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의 하녀”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니까요.

오늘날은 병원이 큰 공장과 같아졌습니다. 흔히 번호로 환자들을 부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수녀들은 신앙인이든 아니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의를 보여 주어야 해요. 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들 근심을 이해하고 또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힘써야 하지요. 그리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녀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환자는 하나의 대상물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들은 실험용 동물, 모르모트가 아녜요.

세상이 악해서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이, 높은 사람과 천한 사람을 나눕니다. 이것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수녀들 안에서 예수님을 봄으로써, 자신이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인간이며 똑같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성사를 못 받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하느님을 발견할 때 진정으로 위대해집니다. 환자들에게 하느님을 위해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들에게 성내지 마세요.

어디에서든지 수도자들은 또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아원의 교리 교육, 직업학교 등에서요. 수도자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유는 학자를 길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에는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교수법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녹음기 등……. 예전에 써 오던 것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서, 수도자들이 이런 것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쓰지 않으면 다른 학교들보다 뒤쳐질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 학교를 무시할 것입니다. 또 학부모와 아이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교육의 목적은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성숙’, 여기서 성숙하다는 순간적인 인상이나 주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의 됴됨이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으며, 끈기 있게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적인 성인(成人)은 다시 말해 성인(聖人)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聖人)은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며, 계시의 빛, 교회의 빛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릇된 학설과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서도 세류를 접해 잘 알아, 제대로 가르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며 올바른 판단

을 내리기 위한 요소를 제공하는 수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녀는 무엇보다 참되고 기쁜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영위해야 하며, 바로 그림으로써 젊은이들을 제대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수녀는 또한 본당의 조력자 혹은 사회사업가로도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할 일이 많지요. 교리교육, 성가, 가톨릭 액션 단체 일, 환자 방문, 노인 방문 등……. 이런 일에 있어서 가난한 이들을 우선 선택해야 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더 가난한 이들에게로 향하시던 예수님처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은 교회의 일이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본당 신부와, 열심한 신자들과의 협의 하에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지 않고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세상이 믿도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교황님과 주교님들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혼자 일하면 성령께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 본당이 수도자들에게 주는 것

일반적으로 수도자들만 본당에 무엇을 가져다준다거나, 수도자들은 본당으로부터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뿐이며, 그런 수도자는 비난받을 만합니다. 본당 역시 수도자에게 많은 것을 주는데, 지금부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더구나 모든 수도자들은 본당 안에서 살아가지요. 우리는 하느님처럼 어디에나 편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제한적인 어느 곳에

선가 살아갑니다.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이고, 축복 받은 곳입니다. 오직 그곳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곳이며, 거기에서야 내 영혼과 양심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만일 내 믿음이 충분하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장소를 사랑하고, 거기서 만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내일 하느님은 나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실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일 어디로 보내실지는 내가 마음 쓸 일이 아니고, 모든 성인들처럼 오늘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것을 주시기를 청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습니까. 지나치게 탄 데를 생각하는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않는 몽상가일 뿐이에요. 아니면 마음으로는 순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요. 또 여러분은 내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만이 확실합니다. 제발 감상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있는 본당이 우리에게 이미 정말 좋은 것, 다시 말해 우리 사도직의 장소를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도직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를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도직을 통해서죠.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첫 번째 부분에서 사도직을 청하고, 그다음에서야 다른 은총들을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를 당신 피의 대가로 얻으셨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우선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에게 그러합니다.

사도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과거의 모든 시대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사람에

게 밝혀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페 3,8-12) 그는 정말이지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요!

본당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커다란 유익은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약한 것이예요. 본질보다 부수적인 사건들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녀들이, 따로 떨어진 공동체 경당에서 미사와 영성체를 할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빈센트 드 폴 성인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과 함께 본당에서 드리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단지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욱 거룩하게 미사를 드리도록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느 한 수도회의 사람이기 전에, 교회의 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당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함은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심화할 수 있고, 전례 안에서 교회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가톨릭 활동단체에서 일할 때 실제 그렇게 되기란 더 어렵습니다.

본당 내의 모든 수녀들은 주교에 의해 파견되었습니다. 장상이 주교의 이름으로 파견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파견된 수녀는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구호, 교육, 본당 사목 협조 등의 임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본당에 사목회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열려야 하는데, 거기에 수녀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녀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므로, 그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수도자들의 소명과 책임이 그런 참여를 촉구하며, 이것은

하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의들 안에서 각자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본당이나 교구, 그리고 세상의 문제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더 잘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모두들 더욱 가톨릭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며, 정신이 더욱 트일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수녀들 영혼에도 선익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과의 공동 활동이 없다면, 수녀들의 공동체는 딱한 지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 담장 안에서 늘 똑같은 규칙을 따르고, 똑같은 기도를 외며, 그들 정신은 몇 가지 습관에 따라 되풀이되고 말 테니까요! 얼마나 천편일률적입니까!

본당은 위대한 성교회를 이루는 세포입니다. 세상 속 한 부분이지만, 교회는 이 땅의 누룩이요 소금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수도자들이 어떻게 인류 전체와 관련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개발 국가, 삶의 물질주의 경향, 달이나 다른 행성 정보 같은 이슈들에 관심 두지 않을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수도자는 그저 세례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 서원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인간 구원을 갈망해야 하고, 인류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당이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제나 활동가의 말을 듣거나 강연을 통해서, 혹은 영화를 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요. 그런 영화는 단순히 수녀들에게 레크레이션 도구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수녀들이 세상 안에서 수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들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본당에 대해 지나치게 아름답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당이

우리 영혼을 위해 많은 선익을 가져오기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본당 일에 너무 전념하거나, 수도원 밖으로 지나치게 나가는 경우, 나쁜 본보기들이나 해이함, 미지근함 등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요. 심지어 본당 신부들 중에도 별로 열정적이지 않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미지근함이나 지옥으로 이끄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몇몇은 수녀들을 하녀처럼 아무거나 시켜도 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애석하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수녀님들, 언제까지 마냥 울며 탄식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할 일은, 양들처럼 아무나 항상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교황님, 주교님, 장상을 따라야 하지요. 이분들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백성 가운데서 목자인 것입니다. 그저 어린양이 아니고요! 또한, 믿음, 희망, 사랑 안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많은 수녀들이, 본당 안에서 누룩이요 빛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대함과 활기와 미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43)</sup>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느 한 수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신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본당 전체에서 모두가 다소 미지근하지만,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저 곳곳이 견디어내십시오!

여러분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은 문제를 던져 주고, 동시에 침묵 중에 그 답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수녀들은 왜 이것을 할까? 하나도 재미없는데도 저들은 행복해 보이네……. 수녀들이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느님은 계시다는 건데, 그러니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나는 무엇을 하지?’

---

43) 이 문장은 대문자로 써서, 성재덕 신부가 힘주어 강조한 내용이다.



나쁜 본보기는 참 빨리 퍼져 나가는데, 다행히도 좋은 표양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사랑 많은 사제를 보게 되면, 그들도 곧잘 더욱 열심히 하며, 애덕이 더 커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미소 짓는, 사랑 많은 수녀를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도 역시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 받으신 것을 생각할 때, 언제나 제게 강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갔을 때,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반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중 몇몇, 바리사이들과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군중들 가운데 누군가가 사람들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아니오, 예수님은 선한 분이요, 그분을 풀어주소.” 라고 군중과 반대로 외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풀려날 수 있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민중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선하시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선포하는 이들, 무엇보다도 좋은 수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군중이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말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말하는 이들만 듣고 보게 된다면, 그것은 빌라도 앞에서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마태 27,22) 하고 외쳤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요컨대, 본당이 여러분의 열정을 돕든가 아니면 여러분 영혼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든가, 견디어 내십시오. 여러분의 애덕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임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녀들이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교회로 가까이 올 것이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사도직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만일 수녀들이 본당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본당에서 수녀들에게 무엇인가, 알게 모르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본당 전체가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불가피하게 수녀들 안에 믿음, 희망, 사랑이 자라날 것이므로 틀림없이 수녀들이 더욱 거

룩해질 것입니다. 본당에서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나 수녀들이라도 신, 망, 애 안에 살아간다면 하느님은 그들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수녀님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닙니다. 사도들처럼 여러분도 ‘파견되었음’을, 그래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본당이 열성적인지 아닌지는 문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지요. 열정이 없다면 실망하지 말고 열정을 부어 넣으십시오. 이미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성장시키도록 힘쓰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소심함이 아니에요. 겸허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허함은 소극성이 아닙니다.

끝으로 저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과 내적 생활을 점점 더 깊게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 수레를 소 앞에 메우지 맙시다!<sup>44)</sup> 우리에게 애덕이 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인일 때 비로소 애덕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인들의 애덕을 먼저 본받고 그다음에 그들의 열정을 본받으라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먼저 그들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다음에야 아주 자연스레 다른 이에 대한 그들의 애덕을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

44) 역주 : ‘쟁기를 소 앞에 메우다’는 불어 표현은 주객,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